

울산문화예술회관과 함께하는

Arts Friend

with Ulsan Culture & Arts Center



20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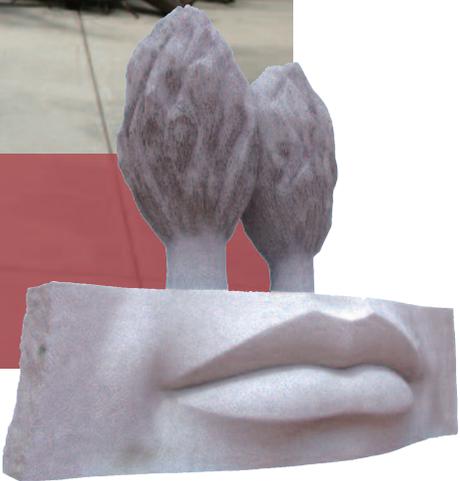
6

www.ucac.or.kr



미술교육 프로그램

『전국 야외조각 초대전 Ⅱ부』



2014. 6. 3(화) ~ 9. 25(목), 115일간 | 야외전시장 |

| 초대작가 | 김성우, 김영궁, 김창원, 방준호, 변숙경, 신동호, 심병건, 이인행, 정재훈, 최정우



6월 3일부터 9월 25일까지 야외전시장 일원에서 열리는 제Ⅱ부 전시에는 김성우, 김영궁, 김창원, 방준호, 변숙경, 신동호, 심병건, 이인행, 정재훈, 최정우 작가의 야외조각 작품 20점이 선보인다. 시민들에게 늘 열려있는 문화 공간으로 다가가기 위해 다양한 전시를 기획하고 있는 울산문화예술회관에서는 야외공간을 이용한 연중상설 전시가 진행중이다.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전국 조각예술 활성화를 위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전국의 조각가 21명과 울산 조각가 9명의 다채로운 야외 조각품 60점이 총 3부에 걸쳐 각 115일씩, 345일 동안 연중 상설로 전시된다.

울산문화예술회관과 함께하는

Arts Friend

with Ulsan Culture & Arts Center

C o n t e n t s



04

기획공연

- _ 드림 스트릭
- _ 모닝콘서트

14

시립예술단 공연

- _ 울산시립합창단 『사랑의 노래』
- _ 울산시립교향악단 『금난새와 함께하는 해설음악회』
- _ 울산시립무용단 『KD 슈퍼스타Ⅲ』
- _ 울산시립교향악단 『Korea Fantasia』
- _ 울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백조의 호수』
- _ 울산시립청소년합창단 『제29회 정기연주회』

29

기획전시

- _ 올해의 작가 6월 『김언영 展』
- _ 전국 야외조각전 2부

예술을 말하다

- _ 예술축제를 찾아서
- _ 리하르트 슈트라우스(Ⅲ)
- _ 재미있는 미술사여행
- _ 함께하는 음악이야기

공연·전시가이드

- _ 6월의 공연·전시

울산광역시 문화예술회관 월간 문화예술정보지 2014년 6월호

통권 175호

발행처 울산문화예술회관 울산광역시 남구 변영로 200
T. 052)227-3884 <http://www.ucac.or.kr>

발행인 이형조

편집인 안종철

기획·편집 박용하·이미경

편집 박용운, 시미정, 권혁민, 김내영

디자인·제작 필리아 T. 052)272-3679

당 신 의
심 장 을
울 린

Drum Struck

뉴욕, 일본, 호주, 중국, 베트남, 남아프리카, 브로드웨이
월드투어 전석 매진의 신화!

세대, 인종, 언어와 성별에 관계없이

모두가 하나되는 세계 최초 인터랙티브드럼 - 연극쇼!





Performance Guide

2014. 6. 27(금) 오후 8시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1층 약기석 30,000

2층 약기석 20,000

2층 관람석 10,000

만 48개월이상 입장가

상호교류적 드럼-연극 퍼포먼스인 이 공연은 아프리카 고유의 비트를 가지고 모든 관객과 함께 드럼을 연주한다. 모든 좌석에 관객들을 위한 아프리카 전통 드럼이 있어 세계적인 드러머, 댄서, 가수와 함께 연주할 수 있다. 관객은 공연을 보면서 느낀 감정을 곧바로 드럼에 쏟아낼 수 있다.

드럼스트릭은 2013년 8월 에딘버러 프린지 페스티벌 (Edinburgh Fringe Festival)에서 우분투(Ubuntu)를 테마로 공연하였다. 우분투여왕의 역할을 맡은 티니 모디즈 (Tiny Modise)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놀라운 퍼포먼스를 관객들에게 선보여 아프리카의 심장 박동과도 같은 전율을 느끼게 했으며, 공연 시간 1시간 전부터 길게 줄을 선 사람들을 통해 그 영향력을 가늠할 수 있었다. 우분투는 사람 간의 관계와 헌신에 중점을 둔 윤리 사상, 혹은 인본주의 사상이다. 이 것은 아프리카의 전통적 사상이며 평화운동의 사상적 뿌리이다. 프로그램은 해마다 관객의 성향에 맞추어 달라지지만 드럼스트릭의 공연은 언제나 사람간의 소통으로 이루어진 따뜻한 감각으로 관객들을 강하게 연결시킨다.



세계음악기행 네 번째 이야기

2014 모닝콘서트 시즌 7

희망과 영광의 나라, 영국



해설 류태형

- 대원문화재단 전문위원
- 월간 객석 편집장
- KBS FM '출발 퀴즈'의 음악 칼럼니스트
- 네이버 [오늘의 클래식] 필자
- KBS 1TV [클래식 오디세이] 음악 코디네이터

2014년 모닝콘서트 “세계음악기행”의 네 번째 여행지는 “영국”이다. 그리고 이번 모닝콘서트에서는 KBS 클래식오디세이의 음악코디네이터로 활약한 칼럼니스트 “류태형” 씨가 해설을, 그리고 바이올린, 첼로, 피아노로 구성된 “Trio Son Pur”(송튀르)가 연주를 맡는다.

엘가에서 벤자민 브리튼까지 많은 작곡가들은 런던으로부터 음악적 영감을 받았다. 영국의 음악을 세계에 알렸던 엘가의 곡으로는 ‘위풍당당 행진곡’, 영국의 국가 Land of Hope and Glory(희망과 영광의 땅), 사랑의 인사 등이 있다. 그리고 21세기에 들어와서 그 뒤를 잇는 세계인들의 밴드라고 불리는 비틀즈가 있다. 음악은 시대적 배경과 사람의 감정을 표현하는 수단인 만큼 세상이 변화면서 음악도 변화된다고 한다. 영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이들을 통해서 어떠한 영향을 받았는지 음악과 함께 들려준다.

Program

- 엘가 ‘사랑의 인사’, ‘위풍당당 행진곡’
- 비틀즈 메들리
- 앤드류 로이드 웨버 메들리
- 랄프 본 윌리엄스 ‘그린 슬리브스 환상곡’
- 헨델 ‘사라방드’
- 영국 민요 ‘대니 보이’
- 존 필드 ‘녹턴’

※ 상기 목록은 공연 순서대로가 아니며 여기서 가감될 수 있습니다.



01 서민정 바이올린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사, 전문사, 전문연주자과정 졸업, 독일 하노버 국립음대 최고연주자 과정졸업, 동아공쿨, 중앙공쿨, 부산공쿨 1위 및 상위입상, 독일 이프라 니만 국제공쿨 1위, 윤이상 국제공쿨 입상, KBS, 수원시향, 부천필하모니, 코리아안심포니, 울산시향, 전주시향, 원주시향, 포항시향등 국내 오케스트라 협연다수, 체코 필하모니, 비엔나 심포니 챔버, 마인츠 심포니, 샌다이 필하모니, 오사카 간사이 오케스트라 등 해외오케스트라 협연다수
예술의전당 주최 교향악축제 협연, 실내악축제, 11시 콘서트, 청소년음악회 협연 및 초청연주
현재 : 숙명여자대학교, 중앙대학교, 한국예술영재교육원, 예술의전당 음악영재아카데미 출강
에라토 앙상블 멤버

02 이상경 Cello

예원학교 졸업, 서울예고, 토론토 왕립음악원 예비학교, 미국 줄리아드 음대 학사, 예일대학교 음대에서 석사학위, 재학 중 알도 파리소상 비릇 예일 음대 동문회상, 일본 쿠사츠 음악 페스티벌 음악 감독상 수상, 2003년 워싱턴 국제공쿨 1등, 특별상, 캐나다 연방공쿨 1등, Woolsey Hall 공쿨, 토론토 대학공쿨 등에서 우승, 프랑스 Douai Geroge Prete국제공쿨, Irving M.Klein국제공쿨, 줄리아드공쿨 등 상위 입상, 제 3회 서울 국제 음악 페스티벌 코리아안 심포니와 협연, 서울 심포니, 대전시향, Yale Philharmonia, Tuscaloosa Symphony, Manhattan Chamber Orchestra, Duouai Symphony, Cathedral Bluffs Symphony, University of Toronto Symphony 등 국내외 오케스트라와 협연 하였다. 금호 문화재단 초청 독주회(금요 콘서트), 세라믹팔래스홀 초청 독주회 및 대전예술의전당 초청 연주회, 뉴욕 링컨센터, Merkin Recital홀, 카네기홀, UN 본부, 워싱턴 케네디센터(Terrace Theater), 파리 Salle Gaveau, 런던 Cadogan홀, 대만 국립극장 연주, 2004-2005 대전 시립교향악단 첼로 수석 활동, 미국 세종 솔로이스츠 멤버
현재 : 미국 뉴욕주립대 스토니 부룩 음대 박사 과정, 한양대학교 실내악 강의교수 및 충남 대학교에 출강, 화음첼버오케스트라 멤버로 활동

03 이혜진 Piano

독일 폴크방 국립음대 (Folkwang Hochschule Essen) Diplom(석사과정), Konzertexamen (최고 연주자 과정) 졸업, 코리아안심포니, 대전시향과의 협연, 독일 Bürger meisterhaus 독주회, 뒤셀도르프 Bach Sall 독주회, 세차레의 Neue Aula 독주회, 98년 귀국 독주회, 99년 금호 금요스페셜 콘서트 시리즈 독주회, 2001년 부암아트홀 초청 독주회와 대전시민회관 독주회를 비롯해 독일 Benefiz Konzert, Georgian 대사관 초청연주, 다수의 금호 현악사중주단과의 연주와 첼리스트 조영창과 전국 4개도시 순회연주, 대구 현대음악제, 통영국제음악제, 삼성 리움미술관, 금호미술관, 독일문화원, 박창수 하우스콘서트 등 크고 작은 다양한 연주무대에서 공연을 펼치고 있다. 후기낭만 러시아 작품을 주제로 한 네델란드 Maastricht Piano Festival 에서 연주, 2003년 미국 워싱턴주의 Meathow Chamber Music Festival에 초청, 다국적 멤버들과 2주간에 걸친 실내악 공연, 일본과 미국에서의 수차례 공연, 2008년 6월, 대전 문화예술의전당 초청 "모차르트 교향악 전곡 시리즈"에서 협연, 2009대전 실내악축제에 초청, 2010년 부산 쇼팽프로젝트시리즈 쇼팽 협주곡협연
현재 : 바이올리니스트 권혁주와의 음반활동

Performance Guide

2014. 6. 24(화) 오전 11시,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전석 7,000원(회원 30%, 단체 20%), 초등학생이상 입장가
연주 류태형 해설, 송필르(바이올린 서민정 / 첼로 이상경 / 피아노 이혜진)

01



02



03



울산시립합창단 기획공연

사랑의 노래

한양대학교 음악대학에서 성악을 전공하고 미국에서 지휘를 수학 후 인천시립합창단과 강릉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를 역임했으며 여러 전문합창단체에서 객원지휘와 강단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최홍민 지휘자를 초청하여 사랑을 주제로 한 '히브리어로 된 사랑의 노래', '오! 대니 보이' 등 총 3부의 프로그램으로 단원들과 울산 시민들에게 다양한 지휘와 음악적 해석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울산시립합창단 기획공연으로 준비하였다.

곡/목/소개

At the Round Earth's Imagined Corners / John Donne

존 단은 17세기(1572-1631)영문학을 대표하는 위대한 시인으로 반 카톨릭적인 감정이 영국에서 거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 유서 깊은 로마 카톨릭 가문에서 태어났다. 한 때 그의 애인에게 바쳤던 시만큼 열렬하게 신에게 바치는 시를 쓴, 장중하리만큼 기지에 넘치고 가열하리만큼 종교적인 성직자였다. 그에게는 일종의 쉬임 없는 탐색의 에너지 같은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손쉬운 상투어나 매끄럽고 공허한 구절들을 경멸한다. 그것은 생생하고 직설적이고 소란스럽다. 존 단의 시는 상상적이고 지적인 고심을 하게 되고, 온통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것이다. '동근 땅의 상상된 끝에서 불어라, 너희 나팔을~ 천사들이여! 일어나라 죽음으로부터~'

Five Hebrew Loving Songs / Eric Whitacre

1996년 소프라노와 바이올린, 피아노를 위한 작품으로 현대작곡가 에릭 휘태커가 그의 아내 힐라 피트만을 위해 작곡했다. 예루살렘출신인 힐라 피트만이 히브리어로 쓴 시에 에릭 휘태커가 아내와의 사랑, 추억을 고요하고 아름답게 표현했다. 바이올린과 템버린의 어울림이 유대인의 정서를 뽐낼 담고 있다. 그림 / 가버운신부 / 대부분 / 눈 / 부드러움 5개의 악장으로 연주한다.

The Stars Stand Up in the Air / E. William Barnum

미국의 작곡자 E. William Barnum의 서정적이면서도 사랑에 대한 애착과 그리움에 대한 애뜻함을 표현한 노래이다. '이것은 그녀를 알게 된 나의 슬픔이오'

Amor de Mi Alma / Z. Randall Stroope

미국 지휘자 겸 작곡가인 Z. Randall Stroope 는 New Mexico Albuquerque 에서 태어났다. 당신은 나의 영혼의 사랑이라고 고백하는 내용의 노래로서 진정한 사랑을 표현한 사랑의 노래이다.

Musical Risotto / Jonathan Willcocks

Jonathan Willcocks (1953~)의 패러디 덩어리 합창곡으로 '음악용어 볶음밥'이라 할 수 있는데 내용은 전부 패러디하고 있으며 모차르트교향곡 주피터 1악장 전주를 사용하고 있다. 음악용어로 재미있게 전체적 음악을 표현하고 있다.



객원지휘자 최 홍 민



Danny Boy / arr.by R. Paul Thompson

1910년 영국의 변호사, 작사자였던 프레드릭 웨덜리 (1848-1929)가 작사한 대니 보이는 Londonderry Air (북아일랜드의 런던데리지방의 노래)라는 아일랜드 민요에 쓴 가사로 1915년에 미국에서 녹음되어 유명한 노래가 되었다. 전쟁으로 떠나는 아들에게 보내는 부모의 메시지, 혹은 떠나는 아일랜드의 디아스포라에게 보내는 메시지로 해석 되었다.

비처럼 음악처럼 / 박성식

가수 김현식에 의해 1986년 발표된 이 노래는 그의 짧은 일대기에서도 가장 인기 높은 곡으로 손꼽힌다. 가수 김현식 특유의 페이스스로 감정을 흡수하는 곡이다. 지금도 비가 내리면 자주 불러 지는 노래는 바로 '비처럼 음악처럼'이다. 한국형 블루스의 단초를 품고 있었던 김현식의 보컬은 '대체불가능성'이라는 말을 신뢰하고 싶을 만큼 독보적이며 아름답다. 지극히 통속적인 노랫말을 담은 가사에 평범해도 좋았을 노래는 가수 김현식 목소리를 빌어 새로워진 곡이다.

Puff(The Magic Dragon) / arr.by John Leavitt

'마법의 용 퍼프는 바닷가에 살았어요, "호날리"라 불리는 그곳에서 가을 안개 속에 뛰어 놀았지요.' 1963년 Peter Paul & Mary가 발표했던 곡으로 안개 속에 뛰어노는 마법의 용과 어린 소년이 함께 놀며 우정을 쌓지만 퍼프는 마법의 용이기 때문에 전혀 나이를 먹지 않고 인간인 소년 만 점차 커가면서 상상속의 모험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고 결국 퍼프를 찾지 않는다는 슬픈 내용의 곡이다.

Rosas Pandan / arr.by George G. Hernandez

장미의 나무를 일컫는 말로서 필리핀 중부 비사얀제도 와 민다나오섬 일부에 살고 있는 Visayan족의 전통음악이다. 이 노래는 바리타우라는 춤추기를 좋아하는 예쁜 산에 사는 여자를 노래한 세부인의 민속노래이다.

Africa / arr.by R. Emerson

1977년 미국에서 결성 된 ToTo 그룹이 연주해 알려진 곡으로 이 노래를 듣고 있으면 아프리카 풍경이 머리를 스쳐서 당장이라도 아프리카로 떠나고 싶은 충동을 일으킨다. 토속적이고 원시적인 것 같은 느낌에도 불구하고 흑인음악들이 들려 올 것 같은 착각도 있지만 아프리카라는 구수한 매력을 흠뻑 전해주는 곡이다.

Lean on Me / arr.by R. Emerson

빌 위더스(Bill Withers)는 싱어 송 라이터로서 1938년 웨스트 버지니아 주 슬렘포크에서 태어났다. 6형제의 막내인 그는 교회에서 노래 부르면서 가스펠적 감흥을 쌓았다. 1972년 4월 발표한 곡으로 그래미에서 클럽누보 버전으로 Best R&B Song을 수상했다. 빌이 광산지대에 살았고 고향을 떠나 LA의 도시로 이사하면서 고향에 대해 느끼게 된 애절한 감정을 표현 한 곡이다.

Uniamo in Amore / Kevin A. Memley

미국 작곡가 Kevin A. Memley의 '사랑 안에 우리는 하나'라는 내용으로 호른의 아름다운 선율과 솔리스트와 피아노, 팀파니, 삼벌즈, 베이스드럼이 함께 합창과 연주함으로 강렬하면서도 선율적인 멜로디가 격한 감동을 불러 일으킨다. 우리는 사랑을 위해 태어났고 당신과 함께 천국에 가는 날까지 함께 하고픈 심정을 노래한다.

Program

- At the Round Earth's Imagined Corners
- Williametta Spencer
- Five Hebrew Love Songs(Violin solo)
- Eric Whitacre
 - I. Temuná
 - II. Kalá kallá
 - III. Lárov
 - IV. Éyze shéleg!
 - V. Rákut
- The Stars Stand Up in the Air
- E. William Barnum
- Amor De Mi Alma - Z. Randall Stroope

Intermission

- Musical Risotto - Jonathan Willcocks
- O Danny Boy - arr.by R. Paul Thompson
- 비처럼 음악처럼(Tenor solo) - arr.by 이선택
- Puff(The Magic Dragon)(Pec.)
- arr.by John Leavitt
- Rosas Pandan - arr.by George G. Hernandez
- Africa - arr.by R. Emerson
- Lean on Me - arr.by R. Emerson
- Uniamo in Amore(Horn/Timpani.Pec. solo)
- Kevin A. Memley

Performance Guide

2014. 6. 3(화) 오후 8시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전석 5,000원(회원 30%, 단체 20%)
초등학교이상 입장가
지휘 최홍민



울산시립교향악단 기획공연

금난새와 함께하는 해설음악회

금난새 {객원지휘}

클래식은 쉽고도 즐겁다! 한국이 자랑하는 지휘자 금난새는 서울대 졸업 후 베를린 음대에서 라벤슈타인을 사사했다. 1977년 최고 명성의 카라얀 콩쿠르 입상 뒤 유러피안 마스터 오케스트라 음악감독을 거쳐 모스크바 필하모닉, 독일 캄머 오케스트라 등을 지휘했으며, KBS교향악단 전임지휘자와 수원시향, 경기필하모닉 상임지휘자를 역임했다. 98년부터는 '벤처 오케스트라' 유라시아필하모닉오케스트라를 창단해 왕성한활동을 펼치고 있다. 창의력 넘치는 아이디어와 재미있는 해설로 클래식 음악이 어렵다는 고정관념을 깨고 늘 청중과 함께 호흡하는 무대를 만들어 왔으며, 특히 '해설이 있는 청소년 음악회'는 94-99년까지 전회 전석매진의 대기록을 세우며 지휘자 금난새를 한국인들로부터 가장 사랑받은 지휘자가 되게 했다. '도서관 음악회', '해설이 있는 오페라', '포스코 로비 콘서트', '캠퍼스 심포니 페스티벌', '뮤직 인 잉글리쉬' 등 관객의 눈높이에 맞춘 다채롭고 신선한 프로젝트를 끊임 없이 선보여왔으며, 산업현장과 학교, 소년원, 군부대와 정부 기관, 도서벽지 등을 '찾아가는 음악회'를 꾸준히 펼치며 소외지역에 대한 문화향수의 기회를 제공해왔다 2005년부터 시작한 '제주 뮤직아일랜드 페스티벌'은 아름다운 휴양지를 무대로 우리 사회의 여론주도층이 세계 저명음악가들과 실내악의 향기 속에서 예술과 우정을 나누는 신개념의 음악축제로 자리 잡았고, 2007년부터는 솔리스트 양성 중심 우리 음악계의 불균형을 바로잡고 젊은 음악도들에게 앙상블과 오케스트라 합주를 통한 음악의 즐거움과 가치를 깨우치게 하는 '금난새 뮤직아카데미 & 페스티벌'을 시작하였다. 최근엔 비전공 대학생들로 구성된 대학연합오케스트라(KUCO)와 농어촌지역의 청소년들로 구성된 농촌희망재단 희망 오케스트라(KYDO)를 열정적으로 지도하며 앙상블의 기쁨과 화합의 정신을 가르치고 있다. 2012년부터는 탈북 청소년들의 사회적응을 돕기 위해 적십자사에서 창단한 희망풍차오케스트라 예술감독도 함께 맡고 있다. 2008년에는 세계 20여개국 90명의 연주자와 함께 '월드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창단, 국내 5대도시를 순회하며 전 세계를 향해 우정과 화합의 메시지를 전파하기도 했다. 금난새 지휘자는 한국메세나협회의 홍보대사로 활동하며 기업이 적극적으로 문화 예술활동에 참여하도록 이끌고 있다. 기업과 예술의 성공적 만남을 이룬 공로로 2006 한국 CEO 그랑프리 문화예술부문 수상자로 선정되었으며, 2011년 세종문화상을 수상하였다. 2008년 3월 계명대학교로부터 음악인로서는 최초로 명예철학박사학위를 받았으며, 2011년 국립 창원대학교의 석좌교수로 초빙되었다. 2010년 10월 인천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으로 취임하여 시민들을 위한 다채롭고 풍성한 음악선물을 제공하고 있다.

뛰어난 음악성과 연주력으로 명성을 쌓아가고 있는 울산시립교향악단이 한국인이 가장 좋아하는 지휘자 금난새를 만난다. 신선한 발상으로 관객의 눈높이에 따라 행복을 전하는 무대위의 나는 새 금난새와 이종은 바이올리니스트의 차이콥스키 바이올린 협주곡이 무대에 오른다.



이종은 {바이올린}

"냉철한 음악적 해석 능력과 환상적인 기교를 갖춘 보기 드문 바이올리니스트"라고 더 스트라드지의 찬사를 받은 바이올리니스트 이종은은 6세 때 바이올린을 시작, 예원학교 재학 중 도미, 뉴욕 줄리어드 예비학교 졸업 및 줄리어드 음대 학사과정을 마쳤다. 줄리어드 석사과정 2학기 이수 후 핀란드 시벨리우스 음악원 석사과정취득, 독일 하노버 국립음대 전문 연주자 과정 취득 후 미국 예일대 음대 Artist Diploma 취득, 뉴욕 스토니부룩 음대 박사과정을 마쳤다. 김남윤, 강효, 김수빈, Dorothy DeLay, Lara Lev, 그리고 Philip Setzer 교수를 사사하였다.

국내에서는 이미 조선일보 콩쿠르 1위, 선화 콩쿠르 2위를 하는 등 여러 방면에서 입지를 다졌고, 해외에서는 링컨센터 Chamber Music Society 영 아티스트 콩쿨 1위, 미국 뉴 줄리어드 협주곡 콩쿠르 1위, 뉴저지 심포니 영 아티스트 콩쿨 2위, 사라사테 국제콩쿨 입상 등 크고 작은 수많은 콩쿠르에서 수상하여 자신의 경력을 넓혀 왔다.

연주경력으로는 우크라이나의 Kharkov Philharmonic Orchestra, 체코의 Hradec Krolove Philharmonic Orchestra, 스페인의 Orquesta Pablo Sarasate, 핀란드의 Helsinki City Orchestra, 미국의 New Jersey Symphony Orchestra, Aspen Young Artist Orchestra, New Juilliard Ensemble, International Sejong Soloists, 그리고 국내 서울 팜스 오케스트라, 포항시립교향악단 등과 수많은 협연 무대를 가져 왔으며, 미국의 카네기홀을 비롯하여 미국, 유럽과 국내무대에서 다수의 독주회를 펼치기도 하였다. 현대음악에도 조화가 깊어 Jeff Fairbanks, Andrea Daly, Tuomas Nikkanen, Julie Mandel, George Cork Maul 등 다수의 현대음악가 작품들을 초연하였다.

이종은은 현재 울산과학기술대학교(UNIST)의 기초과정부 조교수로 후학 양성에 힘쓰고 있다.

곡/목/소/개

로시니 / 알제리의 이탈리아 여인 서곡
Rossini, <L'Italiana in Algeri> Overture

이 오페라는 대표적인 로시니의 오페라 패(희극)의 하나이다. 알제리의 태수가 살고 있는 이국적인 궁전에서 명량한 음악이 시종 무대를 지배하는 재미있는 작품이다. 이슬람 총의 하렘에는 아름다운 이탈리아의 여인이 잡혀 있는데, 태수는 그녀가 마음에 든다. 하지만 이탈리아인들의 기지와 재치로 알제리인들을 모두 술에 취해 끌어떨어지게 하고, 그들은 모두 유유히 탈출한다는 스토리이다. 서곡은 (신포니아)안단테, C장조, 3/4박자의 현 5부에 의한 피아니시모의 피지카토로 시작된다. 32마디부터 목관군이 연주하는 알레그로의 제1주제가 발랄하게 나타나 곡은 단숨에 밝아진다. 현으로 이어져서 82마디부터 오보에가 경쾌한 제2주제를 연주하고 이것은 플루트로 이어지고 또 관과 현이 호응하는 가운데 편성의 의식적 확대와 종격에 의한 소의 "소씨니 크레센도"가 이루어지고 두개의 1주제가 반복된 후 전체의 합주로 명확하게 끝난다.

차이콥스키 바이올린 협주곡.op 35
Tchaikovsky violin concerto in D major, op.35

차이콥스키는 안토니나와 이혼한 후 1877년 겨울부터 1878년 봄에 걸쳐 스위스와 이탈리아 등지로 심신의 피로를 풀기 위해 여행하였다. 그는 이 협주곡을 당시 페페르스부르크 음악원의 바이올린 교수이던 레오폴트 아우어에게 바쳤다.

제 1악장 알레그로 모데라토 아사이 D장조4/4박자 소나타 형식. 처음에 오케스트라의 서주부가 나타나는데, 조용하고 명상적인 선율이 나온 뒤에 제1주제의 단편이 나타난다. 독주 악기는 주제가 나타난 후 찬란한 장식을 가지고 진행하다가 제2주제로 들어간다. 제2주제는 가요풍의 스타일을 가지고 있다. 이리하여 오케스트라의 전개로 대화의 아름다움이 극치에 도달한다. 계속 독주 바이올린의 연주자에 의해 카덴차가 연주된다. 전개부가 끝나자 다시 재현부로 들어간다. 제1주제는 오케스트라와 제1바이올린으로 약하게 나타난 후 점차 크게 넓어져 연주된다. 제2주제는 D장조로 나타나며 독주 바이올린은 종결부에 이르러 열렬한 리듬과 힘찬 속도로 끝난다. 제2악장 칸초네타 안단테 g 단조 3/4박자. 오케스트라의 관악기가 조용히 서주에 나타난다.

드보르작 교향곡 9번 마단조 "신세계로부터"
Antonin Dvorak Symphony no. 9 E minor, op.95
"From the New World"

교향곡 '신세계로부터'는 1893년 드보르작이 미국에 머물던 3년이라는 기간에 만들어진 곡으로 그는 고향에 대한 향수를 달래기 위해 보헤미아의 이주민이 사는 촌락 등을 찾아 다녔으며 거기에서 그들에게 유행하는 아메리카 인디언과 흑인의 민요를 연구, 그 당시 미국인들도 잘 알지 못하던 흑인 영가를 이 교향곡에 사용한다.

제1악장 느린 4박자의 마단조로 당김음이 포함된 선율 없는 음률이 서주로 나타나면 호른이 이를 받아 웅장한 제1주제를 우아하게 연주한다. 이어서 플루트와 오보에가 사 단조로 전조되어 제2주제를 연주한다. 짧은 서주부 뒤에 조용하고 낮은 현악기가 주제를 나타낸다. 맑고 투명한 관악기가 이에 응하면, 이어 최강주가 점점 크게 울려 퍼진다. 주제의 전개에 플루트와 오보에가 연주하는 부주제가 나타난다. 아메리카 인디언 음악의 조각은 이 부분에서 엿보이기 시작하였고, 작은 노래를 바탕으로 해서 하나의 완성이 이루어졌다. 흑인의 노래인 '낮게 튀어라, 내가 탄 마차'의 가락은 독주의 플루트로 이끌어 나온다. 제2악장 신세계 중에서 2악장 '꿈속의 고향'이라는 가사로 불리어지는 작품으로, 흑인영가와 인디언 민요를 토대로 하여 작곡한 것이다. 교향곡에서는 Largo 속도 잉글리시 호른으로 연주되며, 고향을 떠나 사는 사람들에게는 적지 않은 향수를 느끼게 했을 것이다. 이곡은 9개의 교향곡 중 마지막 작품으로 출판사 측의 실수로 '제5번'으로 알려졌다가 '제9번'으로 정정되었다. 주제는 '꿈속의 고향'이라는 제목으로 널리 알려진 유명한 가락이며, 짧은 8마디의 전주는 엄숙하고도 인상적인 화음으로 관악 합주의 저음으로 행되면 잉글리시 호른에 의해 아름다운 향수를 간직한 정감 어린 선율이 악장 전체를 차지한다. 주제를 이어 부주제가 연주된다. 관악기의 장중한 화성이 세 번 반복 되 뒤, 현이 악음을 달고 가장 어린 연주로 반주하면, 잉글리시 호른이 아름다우면서도 쓸쓸한 주제를 불기 시작한다. 이 가락은 울적하게 가슴에 다가온다. 제3악장 아주 빠른 3박자의 스케르초 악장으로 짧은 서주에 이어 단편적인 동기가 점차로 형성되어 플루트와 오보에에 의하여 스키르초 주제가 연주된다. 이어서 흑인 영가와 비슷하기도 하고 보헤미아 민요와도 비슷한 5음 음계의 매수를 띤 트리오 주제를 플루트와 오보에가 인상 깊게 나타내고, 관악 합주의 풍부한 화음으로 3악장은 끝을 맺는다.

Program

- 로시니 / 알제리의 이탈리아 여인 서곡
 Rossini, <L'Italiana in Algeri> Overture
- 차이콥스키 / 바이올린협주곡
 Tchaikovsky Violin concerto in D major op.35
 1. Allegro moderato
 2. Canzonetta Andante
 3. Finale Allegro Vivacissimo

휴식

- 드보르작 / 교향곡 제9번 "신세계로부터"
 Dvorak, Symphony No.9 in E minor ,
 Op.95 'from The New World'
 1. Adagio
 2. Largo
 3. Scherzo
 4. Allegro con fuoco

Performance Guide

2014. 6. 12(목) 오후 8시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R석 1만원, S석 7천원, A석 5천원
 (회관회원 30%할인, 단체10인 이상 20% 할인)
 객원지휘자 외 86명(협연자 포함)
 지휘 금난새(객원) 협연 이종은(바이올린)



이정운



류호정



김수진



김지은



최미정



노연정

Cast

2012년 매공연 매진을 기록하며 많은 사랑을 받았던 울산시립무용단 『나는 무용수다』에 이어 2013년부터 더욱 화려해진 출연진으로 꾸준한 사랑을 받고 있는 『K.D 슈퍼스타』 그 세 번째 무대!! 전국에서 무용수를 초청해서 경연형식으로 열린 기존 형식과 달리, 울산시립무용단원들이 직접 안무하고 기획한 작품을 통해 기발하고 참신한 창작세계를 들여다 볼 수 있는 뜻 깊은 시간이 마련됩니다. 또한 국내에서 우수한 작품으로 평가받고 있는 작품을 선정, 그 작품의 안무자에게 객원안무를 받아 울산시립무용단의 고유레퍼토리로 정착화 하는 다양성을 시도한다.

Performance Guide

2014. 6. 13(금) 오후 8시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전석 5,000원(회원 30%, 단체 20%) 만 5세 이상 입장가
 안무·연출 김상덕(예술감독 겸 안무자) 훈련지도 박정은(무용단 지도자)

Program

- 사계 - 이정운 안무(객원안무)
- 나는 기생이다 - 류호정 안무
- 청...푸르르 - 김수진 안무
- 피에로의 눈물 - 김지은 안무
- 미인 - 최미정 안무
- 엄마야 누나야 - 노연정 안무
- 흑백 깃의 사랑이여 - 울산시립무용단



울산시립교향악단 제174회 정기연주회

oread Fantasia

이번 정기연주회는 안익태가 작곡한 한국을 대표하는 관현악곡 ‘한국환상곡’을 예술감독 김홍재의 지휘로 180여명이 출연한다. 그리고 국내외에서 많은 인기를 독차지하며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피아니스트 이진상을 초청하여 라흐마니호프 피아노 협주곡 2번을 들려 준다.

이진상 {피아노}

지난 2009년 스위스 취리히, 방대한 필수 레퍼토리뿐 아니라 우승자에게 부상으로 주어지는 연주회만 200개 가 넘어 장벽이 높기로 유명한 게자 안다 콩쿠르에서 평론가들의 극찬과 대중의 열렬한 호응을 얻으며 동양인 최초로 우승한 이진상은 한 대회에서 슈만 상, 모차르트 상 그리고 청중 상까지 휩쓰는 유례없는 기록을 남기며 국내외에서 다져진 뛰어난 음악성을 다시 한번 입증하였다. 일찍이 국내에서도 서울예고 수석입학, 한국예술종합학교 영재입학 및 부산 음악콩쿠르 대상(문화관광부장관상), 중앙음악콩쿠르 1위, 서울 신인 음악 콩쿠르 대상 등을 연이어 석권하며 한국 음악계의 주목을 받았던 그는 2001년 일본 센다이 국제피아노콩쿠르에서의 2위 입상을 시작으로, 2005년 쾰른 국제피아노 콩쿠르와 2008년 거장 피아니스트 이자 지휘자로 명성을 떨치는 블라디미르 아쉬케나지가 심사위원장으로 있는 홍콩 국제피아노콩쿠르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국제무대에 이름을 알렸다. 국제무대에서 깊이 있고 독창적인 자신의 음악세계를 넓혀가고 있는 이진상은 니콜라이 즈나이더, 더글라스 보스톡, 데이비드 예프론, 로만 코프만, 마리오 벤지고, 마이클 보더, 무하이팅, 미하일 유로브스키, 블라디미르 아위케나지, 안토니 헤르무스, 올라 루드너, 무에다 토시아키, 에이빈트 굴베르크, 예센, 조나단 노트, 크리스토퍼 워렌 그린, 테오도르 구실바우어, 페터 굴케 등 거장 지휘자들과 함께 무대에 오르고 있으며 뉘른 베르크 심포니 오케스트라, 밤베르크 심포니 오케스트라, 베른 심포니 오케스트라, 베를린 콘체르트 하우스 오케스트라, 비엔나 챔버 오케스트라, 상하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센타이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취리히 톤할레 오케스트라, WDR 방송 교향악단등 정상급 오케스트라에 초청되어 독일, 러시아, 영국, 이태, 프랑스 등 유럽과 미주, 아시아를 넘나들며 활발한 연주활동을 하고 있다.

현을 위한 아다지오

Barber Adagio for Strings op.11

이 매력적인 바버의 작품은 본래 b단조 현악 4중주 제1번의 느린 악장으로, 1936년 27세 때에 작곡된 것이다. 후에 아다지오를 오케스트라용으로 편곡하여 토스카니니가 지휘하는 NBC 교향악단에 의해 초연되었다. 이 작품은 서정적인 분위기가 농후한 곡인데, 명상적인 멜로디가 대위법적으로 전개되어 가는 간결한 구성으로 되어 있다. 그 선율은 그리 심각하지는 않지만 어딘가 비극적인 정서가 풍긴다.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제2번

Rakhmaninov Concerto for piano and Orchestra No.2 in c minor op. 18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 협주곡 중 걸작으로, 널리 연주되는 이 작품은 1899년부터 1901년에 걸쳐 작곡된 명작이다. 그는 4곡의 피아노 협주곡을 썼는데, 2번과 3번이 주로 연주되고 있다. 26세 때부터 얼마 동안 신경 쇠약에 걸려 모든 것에 흥미를 잃고 고통스런 생활을 했는데 친구의 권고에 따라서 달 박사의 이른바 암시 요법으로 회복할 수 있었다. 박사는 매일 그를 자기의 진료소에서 어떤 암시를 주는 것이었다. "당신은 이제 좋은 작품을 쓸 수 있다. 그것은 대단히 훌륭한 것이 될 것이다."라는 덕분에 라흐마니노프는 다시 팬을 들어 제2번을 완성하기에 이르렀던 것이다. 그러므로 그는 이 작품을 달 박사에게 감사하는 뜻으로 바쳤다.

1901년 10월27일 모스크바에서 자신의 피아노 독주로 초연하였는데, 1904년에 이 작품을 글린카상을 받게 되어 500루블을 타게 되었다. 이 작품은 일반에게 친숙하기 쉬운 통속성을 지니고 있으며 긴장되고 힘찬 그러나 시적인 정서가 풍부한 협주곡이다.

안익태 한국 환상곡

Ahn Eak Tay / Korea Fantasia

한국 환상곡은 안익태가 작곡한 한국을 대표하는 관현악곡이다. 이 관현악곡은 총 연주시간이 약 30분으로 관현악과 혼성합창으로 구성된 단일 악장으로 구성 되었으며 초연은 아일랜드의 더블린 시에서 연주되었고 후에 보안을 거쳐 미국의 할리우드에서 완성된 곡이 연주되었다고 한다. 이 곡의 특징은 독일 후기 낭만파 양식이 기초가 되고 있으며 후반부의 합창부분은 애국가와 가락이 중심을 이루며 만세 만세의 가사로 격앙과 고조를 이루면서 끝이 나는데 줄거리는 태고의 민족 탄생과 유구한 역사 외적 침략에 항거하며 독립하여 광복을 이룬다는 것으로 일제 강점기에 독립을 쟁취하려는 분위기가 담겨 있다. 안익태의 "애국가"는 1936년에 작곡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 작품은 작곡자의 일본 및 미국유학을 거쳐 헝가리 시대의 수학(修學)의 결과로 이루어진 작품이라고 볼 수 있으며, 첼리스트와 지휘자로 쌓은 경험을 토대로 창작 음향기능이 중요시 되었다. 부분적으로 한국 민요의 멜로디를 도입하고자 하였지만, 안익태 자신의 서양음악 교육의 바탕 때문에 새로운 기법을 개척하지 못하였다. 세계 첫 연주는 1958년 할리우드에서 이루어졌으며, 국내에서는 1961년 서울시립교향악단과 KBS 교향악단이 합동으로 처음 연주했는데, 이 음악회는 이화여자대학교 대강당에서 당시 이승만 대통령 생일을 기념하기 위한 음악회였다. 그 뒤 국내에서는 국가의 경축기념일 등에서 자주 연주되었으며, 해외에서도 일본, 미국, 남미 등에 연주되면서 외국인들이 한국어로 노래하는, 한국음악의 국제적 선양이라는 선례를 남기기도 하였다.

■ 바버 현을 위한 아다지오
Barber / Adagio for Strings op.11

■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2번
Rachmaninoff / piano Concerto No.2
1. Moderato
2. Adagio sostenuto
3. Allegro scherzando

휴식

■ 안익태 / 한국 환상곡
Ahn Eak Tay / Korea Fantasia

Performance Guide

2014. 6. 20(금) 오후 8시
울산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R석 1만원, S석 7천원, A석 5천원
(회관회원 30%할인, 단체10인 이상 20% 할인)
지휘 김홍재(예술감독 겸 지휘자)
협연 이진상(피아노)
출연 예술감독 외 180명
(특별출연 : 울산시립합창단 50명,
부산시립합창단 50명)



울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제29회 정기연주회

『백조의 호수』



청소년들의 건전한 문화생활을 선도하는 울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이 6월 17일 (화) 제29회 정기연주회를 마련한다. 차이콥스키의 대표적인 작품인 ‘발레모음곡 백조의 호수’ 하이라이트를 중점 프로그램으로 관객과 함께 한다.

Performance Guide

2014. 6. 17(화) 오후 7시 30분,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전석 1,000원
지휘 송유진 지도 김성덕, 장은아, 하정호, 강철훈, 김상조, 최원태

Program

- 시벨리우스 - 핀란드아
- 모짜르트 - 마술피리 서곡
- 차이콥스키 - 백조의 호수
중 1, 2, 5곡

특별출연

Ark Flute Quartet
(아르크 플루트 4중주단)

울산시립청소년합창단 제29회 정기연주회 『신록의 푸르른 합창』



꿈과 희망을 노래하는 울산시립청소년합창단이 6월 26일(목) 오후 7시 30분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에서 제29회 정기연주회 ‘신록의 푸르른 합창’을 개최한다.

울산 출신의 동요작가 서덕출 선생의 노래를 모은 합창모음곡과 미국 합창곡 모음곡 및 베토벤을 비롯한 세계 유명작곡가들의 연주곡을 합창곡으로 엮은 명곡들을 객석에 선사한다.

Performance Guide

2014. 6. 26(목) 오후 7시 30분,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전석 1,000원
지휘 한성웅 지도 김혜영 반주 김나리

Program

- 서덕출의 노래 모음
 - 서덕출 어머니의 노래
 - 나비춤
 - 후끈후끈 여름날
 - 노랑단풍잎
 - 눈은눈은
- 미국의 합창모음
 - 우리들의 날
 - 아름다운 날
 - 그대는 나의 친구
 - 이 모든 세상이 너의 것
- 즐거운 합창
 - 싱어롱
 - 미뉴엣
 - 엘리제를 위하여



• 사랑애 <김언영 作>



• 외출 I <김언영 作>



• 외출 II <김언영 作>

울산문화예술회관 예술창작지원

올해의 작가 개인전·2014 「6월의 작가 김언영展」

울산문화예술회관이 지역 작가들에게 창작활동 동기 부여와
울산사랑 자긍심 고취를 위해 마련한 '올해의 작가 개인전'
상반기 마지막 주자로 「6월의 작가 김언영展」이 “부귀영화
누구나 꿈꾸다”라는 주제로 6월 1일부터 30일간 상설전시
공간 '갤러리 씬'에서 개최된다.

김언영 작가는 대한민국 한국화 페스티벌 및 부산국제아트페어
외 다수 단체전 참여와 울산광역시미술대전, 울산한마음대전에서
전체 대상 수상과 현대미술 한·중·일 우수작가 초대전에서
우수상, 국제창작미술제 동상 수상 등 활발히 작품 활동을 펼치고
있다.

작가는 “시대가 흐르고 모든 것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의 마음일
것”이라며, 부귀영화를 상징하는 ‘모란’ 과 ‘돼지’ 를 테마로 작품을
선보인다.

장지에 채색하는 한국화기법으로 모란 자체가 지니는 상징적
의미보다는 작가가 보고 느끼는 모란으로 탐스러운 꽃망울과
붉은색이 주는 강한 기운을 느낄 수 있게 여러 번 채색을 반복하여
화려하고 생동감 있게 표현하였다.

Performance Guide

6. 1(일) ~ 6. 30(월), 30일간

갤러리 씬

김언영展

또한, 작가는 복을 부르는 상징, 폐지를 스마트폰과 각종 컴퓨터로 기계식 놀이와 물질만능에 젖어있는 현대인들로 형상화 하여 비판과 동시에 사람과 사람의 관계의 중요성을 돼지를 통하여 익살스럽게 말해주고 있다.

「올해의 작가 개인전」은 지역작가 창작활동 지원과 울산 전시 예술 발전에 밑거름이 되자는 취지로 지난해 6월부터 추진하는 전시로, 올해 총 10명의 작가들이 선정되어 매월 릴레이 형식의 개인전이 개최되고 있다.

6월의 작가를 끝으로 상반기 올해의 작가 개인전을 마치고, 5명의 작가로 구성된 7월 하반기 합동전을 이어 8월에 김재옥(한문), 9월에 고동희(서양화), 10월에 이귀동(사진), 11월에 한진숙(문인화) 그리고 12월에 박성란(한국화)작가의 다양한 작품을 기대해본다.

• 봄날 <김언영작>



김언영 Kim, Eun - Young

대구대학교 미술대학 회화과 졸업
개인전 4회(북경, 울산)

수상

울산광역시미술대전 전체 대상 및 특선, 입선
울산한마음미술대전 전체 대상
현대미술 한중일 우수작가 초대전 우수상
국제창작미술제 동상, 신라미술대전 특선,
한국화회전 입선 2회

단체전

- 2013 행복을 주는 힐링전, 울산전업작가회전, 미사랑전(울산)
전국광역시, 제주특별자치도 예총 미술교류전(대구)
- 2012 '똑똑똑! 안녕하세요? 작가님!'
울산청년작가회 도서관 릴레이전(울산)
한마음미술대전 초대전 · 아시아 미술제(울산)
아트 경주 특별전(경주) · 대한민국 젊은 작가전(서울)
영남미술의 동향展(대구)
- 2011 부산국제아트페어 홍강갤러리 특별초대전(부산)
대한민국 한국화 페스티벌 · 불일불이전(서울)
- 현) 한국미협, 울산미협, 울산청년작가회 회장,
한마음미술대전 초대작가, 크레아송 미술교습소운영





『전국 야외조각 초대전 II부』

시민들에게 늘 열려있는 문화공간으로 다가가기 위해 다양한 전시를 기획하고 있는 울산문화예술회관에서는 야외공간을 이용한 연중상설 전시가 진행 중이다.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등 전국 조각예술 활성화를 위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전국의 조각가 21명과 울산 조각가 9명의 다채로운 야외 조각품 60점이 총 3부에 걸쳐 각 115일씩, 345일 동안 연중 상설로 전시된다.

6월 3일부터 9월 25일까지 야외전시장 일원에서 열리는 제II부 전시에는 김성우, 김영궁, 김창원, 방준호, 변숙경, 신동호, 심병건, 이인행, 정재훈, 최정우 작가의 야외조각 작품 20점이 선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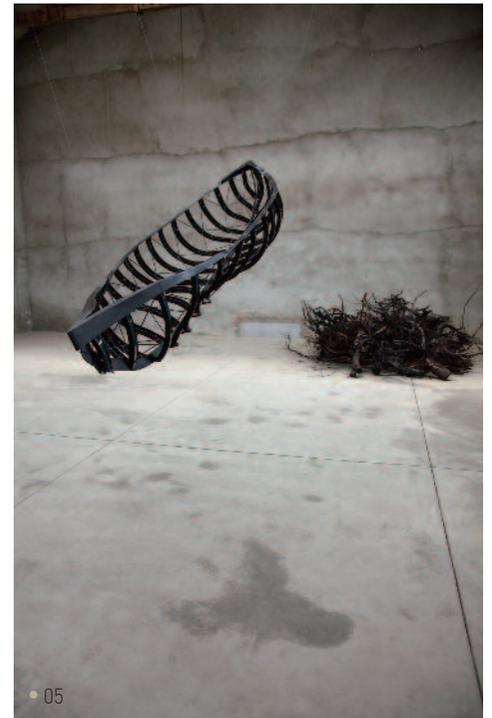
- 김성우 작가는 무거운 석조를 사용하지만, 동심을 담은 이미지로 토끼, 나무 등을 형상화하여 친근한 자연을 이야기하지만 변화가는 자연의 위기를 경고하기도 한다.
- 김영궁 작가는 폐 가구를 재활용하여 붙이고 떼어내어 흥미로운 오브제 형식의 작품으로 <쓰레기 별>이라는 제목처럼 새로운 것에 대한 무분별한 남용으로 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가 엿보인다.
- 김창원 작가는 돌에 철판을 구부리고 다듬어 새로운 공간과 또 다른 공간을 만들어가고 자라나는 생성과정을 표현한 작품이다.



03



04



05

- 방준호 작가는 <목시> 시리즈로 직접적으로 말이나 형상을 드러내지 않고 작품의 분위기로 전달하고자 꼭 다문 입술위로 자연을 연상되게 조각하였다.
- <Daybreak diary>라는 주제로 변숙경 작가는 철제를 이용하여 색다른 질감의 따뜻함으로 차가운 새벽녘에 보이는 꽃 봉우리를 연상케 한다.
- 신동호 작가는 대리석을 다듬고 쪼고, 갈아서 다양한 질감을 가진 작품이며, 자연 속에서 순환을 곡선과 직선을 사용하여 구체화한 작품이다.
- 심병건 작가는 넓은 면의 스테인리스와 구멍이 뚫린 강철을 압축하여 일그러진 자체를 자연스럽게 화려한 입체그림으로 재해석하였다. 석조를 사용하지만 삭막한 도시에 따뜻함을 불어넣는 듯한 작품을 선보이고 있는 이인행 작가는 부드럽게 연마한 돌에 꿈을 담아 선보인다.
- 정재훈 작가는 화강석, 경주석등의 다양한 질감의 돌을 이용, 때로는 매끈하고 정교하게 연마하고, 한편으로는 자연의 조각을 그대로 사용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석조 조각의 다양한 기법을 보여준다.
- 철 작업을 선보이는 최정우 작가는 기하학적인 프레임 공간 속에 자르고, 접고, 붙이고, 두들겨서 만들어진 형상을 매달아 작품의 움직임 속에서 변화로 자연속의 변태관계를 작품으로 형상화하였다.

- 01 _ 김영궁작 <쓰레기 별 124호>
- 02 _ 방준호작 <목시 I>
- 03 _ 변숙경작 <Daybreak diary>
- 04 _ 심병건작 <pressed drawing>
- 05 _ 최정우작 <metamorphosis>



• 06



• 07

06_ 정재훈작 <공간과 공간속으로, 통(通)>

07_ 이인행작 <꿈-휴식>

주로 작가들은 자연을 모티브로 바쁜 현대인들에게 예술 작품으로나마 자연을 가까이 느낄 수 있는 기회이고 또한 보호 받지 못하는 자연에 대한 경각심을 주기도 한다.

다양한 재료로 색다른 질감과 무게감이 주는 흥미롭고 재미있는 전국의 조각 작품들로 야외에서 접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이번 전시가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또한, 야간조명을 설치하여 밤에도 작품 감상이 가능하고 잔잔한 음악이 흐르는 공간에 작품과 조화를 이루며 만들어낼 도심 속의 문화공간에서 도시의 일상에서 잠시나마 벗어나 작은 여유와 즐거움을 느껴보는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초대작가

- 김성우 대구 경북대학교 졸업, 대한민국미술대전·정수미술대전 초대작가
- 김영궁 경기 홍익대학교 대학원 졸업, 경기대·성신여대·국민대·경희대 출강
- 김창원 울산 부산대학교 졸업, 부산바다미술제·부산미술제·섬조각회 출품
- 방준호 대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졸업, 개인전 15회, 춘천MBC현대조각초대전
- 변숙경 서울 성신여대 산업대학원 졸업, 개인전 6회, 단체전 120여회 출품
- 신동호 대구 경북대학교 졸업, 개인전 3회, 대구미술대전 우수상 2회 수상
- 심병건 서울 개인전 5회, 중앙대·홍익대 출강, 홍익조각회·한국미협 회원
- 이인행 울산 울산광역시 미술장식품 심의위원, 단체·기획·초대전 130여회
- 정재훈 경남 한마음미술대전 우수상, 울산미술대전·신라미술대전 특선 6회
- 최정우 경기 개인전 4회, 전국대학·대학원생 조각대전 대상 수상

Performance Guide

2014. 6. 3 ~ 9. 25, 115일간 야외전시장

초대작가 | 김성우, 김영궁, 김창원, 방준호, 변숙경,
신동호, 심병건, 이인행, 정재훈, 최정우

울산문화예술회관과 함께하는

Arts Friend

with Ulsan Culture & Arts Center

Part-1 예술을 말하다

예술축제를 찾아서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Ⅲ)

재미있는 미술사 여행

함께하는 음악이야기

6월의 공연·전시



Speak of Art

예술과 바로크의 도시 드레스덴

독일의 수도 베를린이나 체코의 수도 프라하를 여행할 때면 아는 사람들은 꼭 들르는 곳이 있습니다. 두 도시에서 기차나 버스로 두 시간 정도를 달리면 도착할 수 있는 곳, 바로 드레스덴입니다. 드레스덴은 독일 동부 작센주의 주도(州都)로 체코와 거의 맞닿아 있습니다. 거리상으로는 베를린보다 프라하에서 조금 더 가깝지요. 드레스덴은 '독일의 피렌체' 또는 도심을 가로지르는 엘베 강 때문에 '엘베의 피렌체'로 불리는데요. 작은 도심 안에 30여 개의 미술관과 박물관이 있고 다양한 장르의 음악으로도 유명한 예술의 도시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과거 작센 왕조의 수도였던 드레스덴에는 사치스러울 정도로 호화로운 문화와 예술이 여전히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음악축제에 관심이 많은 저는 5월에 열리는 유명한 재즈 페스티벌 <디스랜드 페스티벌>과 6월 초까지 이어지는 클래식 음악축제 <드레스덴 음악제>를 염두에 두고 드레스덴을 찾았습니다.



● 글 윤하정

KBS앵커, TBC 방송기자등 방송활동과 YES24 공연매거진 등의 공연리뷰 및 인터뷰 기자로 활동하였으며 (지금 당신의 무대는 어디입니까)를 저술하고 현재 영국 휴학 중이며 유럽 공연기행을 준비중이다.

세계대전으로 파괴됐던 드레스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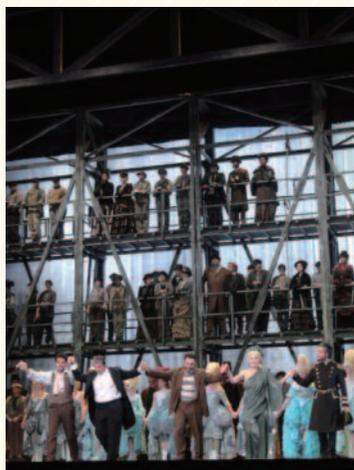
주로 저가항공사들이 이용하는 베를린 외곽의 쉐넬트 국제공항에 도착하면 드레스덴으로 이동하는 버스를 탈 수 있는데요. (베를린과 프라하 도심에서도 드레스덴으로 이동하는 버스가 있습니다.) 그 버스를 타고 두 시간여를 달려 드레스덴 중앙역에 도착했습니다. 중앙역에서 걸어 나오면 도심 곳곳을 거미줄처럼 연결하는 트램들이 쉴 새 없이 움직이는데요. 트램 라인을 가로질러 걸어가면 쇼펍센터가 몰려 있는 프라거 거리가 나옵니다. 중세의 중후함이 느껴지는 독일의 여느 도시풍경과 달리 드레스덴은 계획도시처럼 잘 정비돼 있는데

요. 하지만 조금 더 걸어가면 무척 화려한 건축물들이 곳곳에 자리한 구도심이 본격적으로 펼쳐집니다. 특히 프리드리히 아우구스트 1세 시절에 지어진 쟈퍼 오페라하우스, 레지텐츠 궁전, 츠빙거 궁전 등은 드레스덴을 대표하는 유산들입니다. 도시를 가로지르는 엘베 강에는 아우구스트 투스다리를 비롯해 몇 개의 다리가 놓여 있는데, 다리 건너편은 신시가(노이슈타트)입니다. 구도심의 엘베 강변에는 '브뤼의 테라스'라는 지대가 있는데요. 원래는 1740년 경 아우구스트 3세의 친구인 브뤼 백작이 만든 정원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바라보는

경치가 무척이나 아름다워서 '유럽의 발코니'라 불릴 정도입니다. 드레스덴이 이처럼 계획도시 같은 면모와 중세의 멋을 함께 지닌 이유는 도시의 상당부분이 제2차 세계대전 때 파괴됐다 재건됐기 때문입니다. 1945년 2월, 드레스덴의 도심부는 연합군의 무차별적인 폭격을 받아 파괴됐고 이 과정에서 민간인 2만5천 명이 희생되기도 했죠. 이후 빠르게 재건된 드레스덴은 공산당 진영인 동독의 주요 도시로 자리하다 1990년 독일 통일 이후 더욱 활발하게 발전하고 있는데요. 드레스덴을 대표하는 주요 건축물들도 모두 파괴됐다 원형대로 재건됐습니다.

드레스덴이 자랑하는 바로크 건축물들

츠빙거 궁전 • 작센 왕국의 번영을 상징하는 츠빙거 궁전은 바로크 궁전의 걸작입니다. 궁전 벽면을 가득 메우고 있는 섬세하고 화려한 조각들에는 입이 떡 벌어질 정도죠. 츠빙거 궁전은 정원을 사이에 두고 'U' 자에 가까운 형태를 띠고 있는데요. 라파엘로의 <시스티나 성당의 마돈나> 등 거장들의 명화가 소장된 알테 마이스터 회화관, 동양의 도자기는 물



론 마이센 자기 등이 방대하게 펼쳐진 도자기 컬렉션 등은 특히 유명합니다.

대성당 • 낮보다 밤에 훨씬 아름다운 대성당은 작센 왕의 최대의 교회입니다. 지하실에는 작센 왕의 가계인 베타가의 묘가 있고 놀랍게도 그릇에 넣은 아우구스트 대왕의 심장이 보관돼 있습니다. 로코코 양식의 설교단과 파이프 오르간, 제단화 등 종교 미술의 주옥같은 작품들을 볼 수 있는데요. 바로크 양식의 대성당은 야간 조명이 드리우면 더욱 환상적인 자태를 뽐냅니다.

젠퍼 오페라 하우스 • 바그너의 <탄호이저>, R.슈트라우스의 <살로메> 등 많은 명작이 초연된 유럽 굴지의 명문 오페라 극장입니다. 매해 5월 하순부터 3주간 이어지는 <드레스덴 음악제>를 비롯해 연중 다양한 오페라와 클래식 콘서트가 펼쳐집니다. 유럽의 여러 도시에서 생활했던 바그너가 가장 오랫동안 머물렀던 도시가 바로 드레스덴인데요. 그래서 젠퍼 오페라 하우스에서도 바그너의 다채로운 레퍼토리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외관만큼 내부도 화려

한 장식과 수준 높은 음향을 자랑합니다.
군주의 행렬 • 작센 왕들이 살던 레지덴츠 궁전의 일부인 슈탈호프 외벽에 그려진 '군주의 행렬'은 그 길이가 101m나 됩니다. 카메라로는 도저히 담아낼 수 없는 사이즈네요. 작센을 통치했던 35명의 군주가 말을 타고 행진하는 장면을 묘사했는데, 그냥 그림이 아니라 약 2만5천 장의 마이센 자기타일을 이용한 벽화입니다. 다행히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폭격에도 훼손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드레스덴 음악제(Dresden Music Festiva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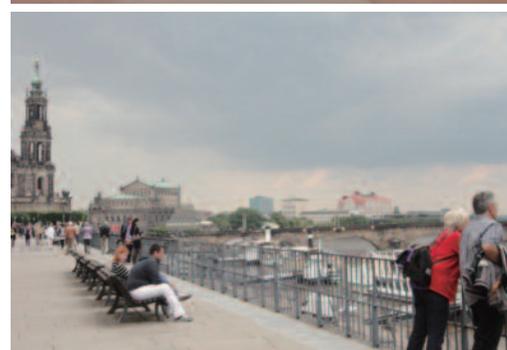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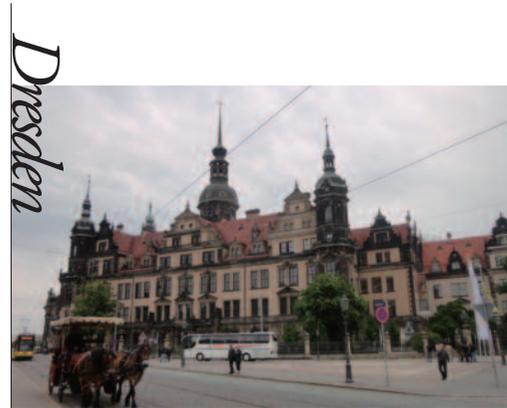
드레스덴의 주요 건축물을 언급한 이유는 <드레스덴 음악제>가 이들 명소를 비롯해 도심 곳곳에서 펼쳐지기 때문인데요. 5월 말부터 6월 초까지 2주 반 정도 진행되는 <드레스덴 음악제>는 독일의 대표적인 클래식 음악 축제 가운데 하나로, 이 기간 드레스덴의 화려한 궁전과 성당, 교회, 오페라하우스는 물론 브뤼엘의 테라스에서도 그 화려함을 더욱 빛나게 하는 아름다운 선율이 끊이지 않습니다. <드레스덴 음악제>는 1978년 동독 정부의 방침에 따라 시작됐는데요. 덕분에 이 작은 도시에서 열리는 축제는 국제적인 명성에 걸맞은 수준을 선보일 수 있었습니

다. 어느덧 40년의 역사를 내다보는 <드레스덴 음악제>는 해마다 세계적인 오케스트라와 솔리스트, 앙상블은 물론 전 세계 클래식 애호가들을 드레스덴으로 손짓하고 있습니다. 올해 <드레스덴 음악제>는 5월 23일부터 6월 10일까지 진행됩니다. 몇 년 전부터 축제의 테마를 내걸고 있는 <드레스덴 음악제>의 2014년 테마는 'Golden 20s'. 1620년, 1720년, 1820년, 그리고 1920년의 음악을 되짚어 봅니다. 특히 <드레스덴 음악제>는 <프라하 봄 축제>와 기간이 겹치기 때문에 클래식 음악을 좋아한다면 날짜를 잘 맞춰 두 도시를 함께 여행할 것을 적극 권합니다.

딕시랜드 페스티벌(Dresden International Dixieland Festival)

올해로 44회를 맞은 <드레스덴 딕시랜드 페스티벌>은 5월 중순(2014년에는 5월 11일부터 18일까지)에 8일 동안 열리는 재즈 페스티벌입니다. 20세기 초반 백인 뮤지션들의 재즈 스타일을 일컫는 '딕시랜드'가 탄생한 미국 뉴올리언스와 함께 드레스덴의 축제는 세계적인 재즈 이벤트로 꼽히는데요. 엘베 강 위에서 펼쳐지는 리버보트

셔플(Riverboat Shuffle) 퍼레이드는 <드레스덴 딕시랜드>의 자랑인데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증기선에서 재즈 공연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또 공원에서 야외 콘서트, 올드 타운을 가로지르는 브라스 밴드의 퍼레이드는 물론 도심의 크고 작은 바에서도 다양한 레퍼토리의 재즈 공연이 펼쳐집니다.



독일 후기 낭만파를 대표하는 대작곡가

리하르트 슈트라우스(Ⅲ)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오페라를 살펴보려면 먼저 그의 교향시를 거쳐야 한다. 교향시에서 완성한 그의 음악적 기법을 바탕으로 슈트라우스의 대표작이라 불리는 오페라들이 탄생하는 것이다. 그의 교향시에 대해 작품 연대순으로 간단히 알아보자.



- 01_ 리하르트 슈트라우스
- 02_ 리스트 데 몰리나
- 03_ 바이런
- 04_ 니콜라스 레나우

슈트라우스의 교향시는 언제나 작품마다 새로움을 추구하며 과거의 것을 답습하지 않는다. 그는 음표 효과와 구성을 치밀하게 계산하여 인간의 감각에 호소하면서 뮌헨 대학에서 공부한 철학과 미학을 포함하는 교향시를 작곡하여 '음을 다루는 장인'으로 불렸다. 슈트라우스는 자신의 교향시를 리스트 풍의 교향시에서 발전했다는 의미의 '교향시(Symphonische Dichtung)'라는 용어보다 음으로 시를 읊는다는 의미의 '음시(Tondichtung)'라고 불렀다.

슈트라우스는 교향시(8)와 교향곡(2)를 합해 총 10작품을 작곡하였다. 넓게는 교향곡까지 포함한 교향시 전체를 통해 드러나는 슈트라우스의 창작과정의 변화를 보면 오케스트레이션분야에서는 객관적이면서 보편적인 오케스트라 세계에서 관현악의 새로운 분야를 열어 무한한 가능성을 제시한다.

작품 내용적으로는 초창기 교향시들, '백베드', '돈후양', '죽음과 변용' 등은 작곡자 자신의 어떠한 것도 투영되어있지 않다. 주제의 내용이나 관념을 상당히 객관적으로 작곡에 적용한다.

'틸 오일렌슈피겔의 유쾌한 장난'에 이르면 점점 주관성이 더해져서 슈트라우스 자신이 즐기는 풍자와 유머를 끌어넣기 시작한다. 이제 '짜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에서는 자신과 관련된 표현이 등장한다. 이 작품에서는 예술가로서 자신의 자의식이 니체의 사상과 결합하게 되는 것이다. '돈키호테'에서는 주인공을 통해 슈트라우스 자신이 상상하는 풍자를 삽입한다. 궁극적으로는 보편화를 지향하고 있다. '영웅의 생애'에서는 자신의 자화상을 투영시켜 보편적인 인간 영

을 표현해내고 있다. '가정교향곡'은 자신의 가정을 묘사하면서 이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행복한 가정의 모습으로 객관화 시키고 있다. '알프스교향곡'은 젊은 시절 자신의 등산 경험을 바탕으로 알프스 산의 정경과 등산에 관한 현실적이고 보편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최초의 교향시 '대관현악을 위한 교향적 환상곡 이탈리아에서 OP.16'은 4악장 형식으로 표제교향곡과 교향시의 중간 형태이다. 뮌헨 궁정오페라극장 악장 시절 작품으로 대지휘자 한스 폰 빌로우에게 헌정하였다. 1886년 완성하여 이듬해 3월 뮌헨 국립극장에서 작곡자 자신의 지휘로 초연하였다.

관객들의 반응은 박수와 야유가 섞여 있었지만 '이탈리아에서'의 초연 후 슈트라우스는 자신만의 음악적인 목소리를 찾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이제 "나는 이제 내가 가고 싶은 길에 올랐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에 편안하다"면서 자신의 방향을 정하여 자신만의 길을 가겠다고 선언하게 된다.

이 작품은 물론 이탈리아 여행에서 받은 인상을 토대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작품에서는 단순히 로마와 나폴리의 아름다운 자연 풍광을 묘사한 것이 아니라, 그 자연에서 느낀 감정을 음악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탈리아에서'는 슈트라우스가 이후 나타나는 월등한 오케스트레이션이 아직은 드러나지는 않고 있지만, 작품 전체적으로 이탈리아의 밝은 풍광과 남국의 화사한 분위기를 그대로 머금고 있는 작품이다, 본격적인 슈트라우스의 특징이 등장하는 교향시 '돈후안 Op 20'은 독일시인 레나우(Nikolaus Lenau

Richard Strauss

1802~1850)의 미완성 작품 '돈 후안'을 기초로 슈트라우스가 작곡한 작품이다. 레나우의 '돈 후안'은 종래의 돈 후안과는 관점이 달랐다. 레나우의 '돈 후안'은 예부터 전해 내려오는 돈 후안의 전설을 최초로 극화한



틸소데 몰리나의 종교극 '세비아의 바람둥이와 석상 손님의 초대' 이후 몰리에르와 코르네이유, 푸쉬킨의 희곡, 모차르트의 오페라, 바이런의 시, 호프만의 소설 등에서 다루었던 단순히 여성을 밝히는 바람둥이 귀족이라는 주제에서 한 단계 발전한 작품이다.

레나우는 돈 후안을 현실 속에서 자신에게 맞는 최고의 여성을 찾아 세상을 부유하는 이상주의자로 묘사하게 된다. 작품 속 돈 후안은 이상적인 여인을 언제나 동경하여 많은 여인들을 만나지만 결국은 이루지 못하고 고독 속에 생을 마감한다. 슈트라우스는 레나우가 그린 돈 후안의 세계에 매료되었는데, 돈 후안의 이상주의자적인 면모와 돈 후안의 심리에 대한 레나우의 묘사에 강하게 이끌렸다.

레나우의 '돈 후안'을 텍스트로 채택하여 작곡에 착수할 당시 슈트라우스는 후일 자신의 아내가 되는 파울리네에게 푹 빠져 있었다. 슈트라우스는 그녀의 성격을 "매우 복잡하고, 매우 여성적이며, 조금 괴팍하고, 조금 요염하며, 매 순간 기분이 달라진다."고 묘사한 바 있다. 이런 특이한 여인을 사랑했기에 레나우가 표현한 돈 후안의 '여성 탐구를 향한 여정'을 텍스트로 한 편의 장대하고 변화무쌍한 음시를 작곡할 수 있었다.

슈트라우스는 자신의 이상형으로 여긴 파울리네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돈 후안이 이상적인 여성을 찾아 헤매는 심리에 투영시킨 작품이었다. 여기서도 시의 줄거리에 따라 작곡을 한 것이 아니라 시에 내재된 돈 후안의 심리와 감정상태, 이상을 다루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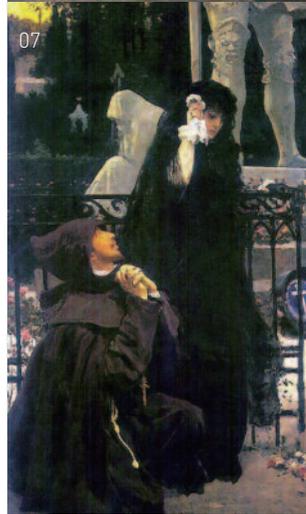
작품 속 돈 후안과는 달리 슈트라우스는 파울리네와 백년해로를 하게 된다. 1894년 슈트라우스와 결혼하여 56년간 결혼생활을 영위했던 파울리네 마리아 드 아나 (Pauline Maria de Ahna: 1863-1950)는 독일 바바리

아 지방의 잉골슈타트에서 태어났다. 파울리네는 성미가 급한 것은 말할 나위도 없고 거만하다는 소리를 들었으며 남편 슈트라우스를 쥐고 혼든다는 말을 들었다. 게다가 수다스럽고 행동은 언제나 거침없고 제멋대로 하는 것으로

유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사람의 결혼생활은 행복한 것이었다. 슈트라우스는 아내 파울리네 드 아나를 깊이 사랑하였고 그녀에게서 작품의 영감을 많이 받았다. 소프라노인 파울리네를 위해 여러 편의 작품을 작곡했다. 1894년 바이마르에서 초연된 슈트라우스의 첫 오페라 '군트람'의 프라이힐트 역을 맡아 주인공의 이미지를 창조하였다. '인터메조'에서 크리스티네, '영웅의 생애'에서 영웅의 반려자로, '가정교향곡'의 여러 부분에서 파울리네를 상징하는 음악을 만들었다. 오페라 '그림자 부인'의 주제가 되기도 했고 가곡 '네 개의 마지막 노래'는 순전히 파울리네의 자문으로 만들어진 것이었다. 슈트라우스의 오페라에서 소프라노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파울리네의 영향 때문이었다.

교향시 '돈 후안'의 초연은 1889년 11월 바이마르 대공의 궁정극장에서 슈트라우스 본인의 지휘로 이루어졌다. 초연은 대성공이었고 연이어 베를린, 드레스덴을 위시하여 파리 등지에서 연주되어 전 지역에서 호평을 받은 작품이다. 이 작품 덕분에 슈트라우스는 불과 25세의 나이에 독일 음악계의 주요 작곡가로 부상하게 된다. 돈 후안부터는 이제 오케스트라가 화려하고 웅장하게 비르투오적인 스타일을 보여주는 슈트라우스의 완숙한 개성이 드러난다. 이 음악은 도입부부터 그 당시 일반적인 관현악곡의 도입부와는 완전 차별화되어 마치 폭포수처럼 음이 쏟아져 내려 그 장엄함으로 음악계에 큰 반향을 일으킨다.

16분 쉼표의 그 짧은 쉼표 직후 폭발적인 상승음은 단도직입적으로 돈주앙이 추구했던 환락의 세계를 그대로 펼쳐보이고 있다. 또한 이상적인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이상주의자로서의 돈 후안의 모습을 시원한 호른 연주로 표현해 웅장한 이미지를 부여한다.



- 05_ 몰리에르 희곡 '돈 후안'
- 06_ 모차르트 오페라 속 '돈 조반니'
- 07_ 푸쉬킨 작품 '석상 손님' 중의 돈 후안

● 글 송종진
영국 런던 리반센터에서 무용 정치학, 무용사, 무용미학을 전공하고 「무용예술의 존재론적 특성과 비평」, 「무용 그리고 '움직임의 연기」, 「무용과 비평」등의 저서가 있으며, 현재(무용과 오페라) 발행인 겸 작가로 활동중이다.

재미있는 미술사여행

부세의 '퐁파두르 부인의 초상'



도판 1

‘자수성가한 입지전적 인물’이라고 하면 대개 우리는 맨주먹에서 시작해 큰 성공을 일군 기업가나, 고위 전문직, 혹은 방송에서 볼 수 있는 유명한 사람들의 모습, 대개 남성을 떠올린다. 반면 ‘왕의 여자’라는 말을 들으면 양귀비나 장희빈처럼 미색으로 나라까지 위태롭게 만든 ‘팜므 파탈’을 연상하게 된다. 이 두 수식어를 두루 아우르는 몇 명의 인물이 역사 속에 기록되어 있는데 프랑스의 왕 루이 15세의 애

첩이었던 퐁파두르 후작부인 (Marquise de Pompadour, 1721-64)이 그 중 한 명일 것이다.

태양왕 루이 14세로 대표되는 절대왕권의 전성기가 지난 뒤 프랑스 왕실에는 쾌락과 즐거움, 가볍고 여성적이면서 섬세한 주제의 예술이 유행했다. 웅장하고 장엄하기까지 했던 17세기의 바로크 미술과 달리, 흔히 로코코(Rococo)라 불리는 18세기의 후기 바로크 미술은 프랑스 혁명 직전 절정에 달한 왕실과 귀족의 향락문화를 오롯이 담고 있다. 그런데 이 시기 프랑스 왕실의 로코코 미술의 최대 후원자는 왕도, 왕비도, 유력 귀족도

아닌 한 여인, 바로 퐁파두르 부인이었다. 후작부인이라고 하지만 퐁파두르는 귀족 출신이 아니었다. 원래 이름은 잔 앙투와네트 푸아송이었고, 부유한 부르주아 집안 출신이었다. 비록 태생적 귀족은 아니었지만, 당대 상류층 여성들이 받는 교양 교육을 두루 받았고, 이를 통해 귀족과 결혼하여 사교계에 입성할 수 있었다. 왕실 행사에서 그녀를 눈여겨 본 루이 15세는 그녀에게 이혼을 명령한 다음, 후작부인의 작

위를 하사하여 왕실로 불러들인다. 어린 시절부터 뛰어난 미모와 지성으로 유명했던 그녀는 궁정에서도 왕의 총애를 받았고, 조금씩 왕실에서 영향력을 키워 나갔다. 그녀는 단순한 왕의 정부가 아니었고, 비서의 역할을 하며 정치와 문화 전반에서 큰 영향력을 발휘했다. 그렇지만 역사 속의 다른 ‘왕의 여인’들처럼 재물이나 권력을 탐하지는 않았다.

퐁파두르는 궁정에서 화려한 삶을 누리면서도 예술과 학문을 평생 동안 후원했다. 다재다능했던 그녀는 다양한 분야에서 영향을 미쳤고, 향락에 젖은 루이 15세를 대신하여 다양한 예술 분야를 후원했다. 퐁파두르는 당시 왕실을 포함한 기득권층에게는 위협할 수도 있는 내용을 설파하는 계몽주의 철학자들을 적극적으로 후원했다. 그녀는 루이 15세가 위험인물로 구분한 볼테르와 루소의 후원자이자 친구였고, 디드로와 달랑베르 등이 추진한 <백과전서(L'Encyclopédie)>의 출판도 지원했다. 그녀는 자신의 미술선생이기도 했던 부세(François Boucher)의 최대 후원자였고, 초상화를 여러 번 주문하기도 했다. 부세가 그린 퐁파두르 부인의 전신초상화는 당시 궁정, 더 나아가 프랑스를 모방하던 전 유럽 사교계의 유행을 주도한 ‘패셔니스타’로서의 모습이 여실히 드러난다. 화려한 드레스와 우아한 자태, 이후 ‘퐁파두르 스타일’이라고 불리는 단아하게 땅아 올린 머리와 장미꽃 등은 그녀의 여성적인

아름다움을 풍부하게 드러내지만, 그녀는 단지 미모만을 과시하지 않는다. 그녀의 초상화에는 대개 책이나 지도, 악기, 지구仪, 깃털 펜 등이 함께 그려져 지적인 여인, 즉 ‘팜므 사방트(Femme Savante)’로서의 이미지를 강조한다(도판 1).

부세는 풍파두르 부인을 여느 왕이나 귀족의 초상화처럼 엄숙하고 화려하게 그리기 보다는, 쿠션에 기대어 책을 보다 잠시 휴식을 취하는 순간을 담은 듯 자연스럽게 그려냈다. 레이스와 리본, 꽃으로 장식된 화려한 비단 드레스를 입은 모습은 우아하기 그지없다. 그런데 풍파두르의 뒷벽에 걸려 있는 커다란 거울에 비친 책장을 보

면 책이 빼곡히 꽂혀있고, 발치에도 다른 책과 악보들이 여기 저기 놓여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화가는 이런 소품을 통해 그림 속의 인물이 미모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다방면에 재능이 있는 재녀(才女)임을 보여주려 한 듯하다.

2년 후 다시 제작한 초상화에서도 이런 성향은 다시 드러난다(도판 2). 여기에서 풍파두르 부인은 정원에서 독서를 하다 어디에선가 들려온 새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듯한 모습으로 표현되어 있다. 단순한 드레스와 왼쪽 팔꿈치 근처에 잔뜩 쌓아둔 책을 보면 그녀가 왕의 총애와 신임을 한 몸에 받는 여인, 사교계의 여왕이라는 사

실을 믿기 어려울 정도이다. 프라고나르 등의 다른 로코코 화가들의 작품에도 종종 나타나는 부드러운 이끼와 섬세한 이파리, 그녀 주변의 피어난 장미는 사적이고 친밀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그림의 주인공을 더욱 돋보이게 한다.

이 시기의 대표적인 초상화가 중 한 명인 모리스 쾅탱 드 라 투르(Maurice Quentin de la Tour)가 제작한 거대한 전신초상화에서도 비슷한 모습을 찾아 볼 수 있다(도판3). 그는 특히 파스텔을 즐겨 사용했는데, 이는 자연스럽게 부드럽게 혼합되는 색채를 통해 인물의 아름다움을 부각시키는 데 특히 효과적이었다. 거의 실물



도판 2



도판 3

도판 1

프랑수아 부세, <풍파두르 부인의 초상(Portrait of Marquise de Pompadour)>, 1756, 캔버스에 유채, 201x157cm, 원본 알테 피나코텍.

도판 2

프랑수아 부세, <풍파두르 부인의 초상(Portrait of Marquise de Pompadour)>, 1756, 캔버스에 유채, 72.5x57cm, 런던 빅토리아&앨버트 미술관.

도판 3

모리스 쾅탱 드 라 투르, <풍파두르 부인의 초상(Portrait of Madame de Pompadour)>, 1755, 종이 파스텔, 1.75x1.28m, 파리 루브르 박물관.

크기에 가까운 정도로 커다란 크기의 이 초상화에서도 풍파두르 부인의 지성은 돋보인다. 이번에는 책이 아니라 악보를 보고 있는데, 책상 위에는 지구본과 <백과전서>, 권력분립에 의한 법치주의라는 당대에는 매우 급진적인 사상을 담은 몽테스키외(Charles-Louis de Secondat, Baron de La Brède et de Montesquieu)의 <법의 정신(L'Esprit des lois)>을 포함한 여러 권의 책, 데생을 한 종이가, 의자 뒤에는

비올라가 놓여 있어 다방면에 걸친 그녀의 교양을 암시한다.

43세의 나이로 세상을 뜰 때까지 풍파두르 부인은 루이 15세의 궁정 사교계의 중요 인물이었다. 그러나 귀족 출신이 아니었고, 그녀의 미모와 재능을 시기하는 이도 많았기에 그녀는 자신의 입지를 확립해야만 했다. 여러 초상화에서 미모와 함께 지성과 교양을 강조한 것 또한 이런 생존 방식의 하나였을 것이다. 계몽주의를 후원할

정도로 지적이고, 어떤 주제에서라도 재치 있는 대화가 가능한 아름다운 여인의 이미지는 그녀를 오랫동안 사교계의 여왕으로 남게 한 비결이었다. 그리고 이런 과정 속에서 로코코 미술 또한 만개할 수 있었다.

● **글 황주영**

미술 칼럼니스트로 미술사와 정원사 관련 다양한 학회 논문 발표하고 있으며, 현재 '벽역과 집필, 강의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함께하는 음악이야기

안익태와 한국환상곡

지난해 서울시청 앞 잔디 광장에서 펼쳐진 현충일 플래쉬몹은 참 가슴 뭉클했다. 날씨 화창한 공휴일, 사람들로 가득 찬 광장에서 음악을 틀어놓고 춤을 추기 시작한 한 명의 청년에게 눈길이 멈춰졌다. 그가 춤을 잘 추기도 했지만 한 사람으로 시작된 춤이 세 사람, 다섯 사람으로 점차 늘어났고 그 날이 현충일임을 자각하게 하는 잠깐의 묵념을 유도하자 광장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둘 묵념에 동참했다. 그리고 이어진 “나라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퍼포먼스와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즉석에서 함께 어우러지는 속에서 애국가가 이어지자 가슴 한켠이 묵직해졌다. 함께 즐기며 국가공휴일을 기억하고 새기는 요즘 젊은 세대들의 방식이 멋지게 느껴지기도 했고 애국가가 주는 힘이랄까, 정서에 대해 생각해보게 됐다. 사실 평소에 애국에 대해 깊이 생각하며 살지 않지 않은가. 하지만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애국가가 나올 때 종종 울컥할 때가 있는 걸 보면 애국가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느껴지는 심금을 울리는 그 무엇이 있는 것 같다. 사실 다른 나라의 국가를 들어보면 대개 행진곡 풍으로 좀 가벼운 느낌이 있지만 애국가는 위엄이 느껴지고 격조있게 들리지 않는가.

애국가의 원곡은 안익태 선생(1906~1965)의 ‘한국환상곡’이다. 안익태 선생이 1938년 아일랜드 더블린에서 초연하고 수차례의 수정을 거쳐 20년 후에야 최종 완성을 한 ‘한국환상곡’ 중의 합창선율이 지금 우리가 애송하고 있는 애국가다. 애국가의 역사를 잠시 살펴보면 1890년대 독립신문의 ‘애국가 지어부르기’ 운동에서 시작돼 다양한 가사와 곡조로 불려졌고 안익태 선생의 곡이 애송되기 이전에는 스코틀랜드 민요인 ‘올드 랭 사인 (Auld Lang Syne)’ 선율에 가사를 붙여 노래했다. 그러다 임시정부 때부터 안익태 선생의 ‘한국환상곡’이 애국가로 불리다가 정식으로 애국가로 채택된 것은 1948년 광복 이후였다. ‘한국환상곡’은 관현악과 합창단을 위

Ahn Eak Tai



한 대한상곡'으로 우리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외적의 침입에 항거하는 민족정신을 담았다. 그리고 후반부 애국가가 여러 형태로 나오는 합창부분은 8.15해방의 기쁨과 평화를 상징해서 그런지 더 감동적으로 다가온다. 웅장한 오케스트레이션에 규모가 큰 합창이 주는 감동도 있고 일제지하에서 외국 연주 여행을 할 때도 반드시 우리말로 노래 부르게 했다는 안익태 선생의 일화 때문인지 합창 부분을 들을 때면 뜨거운 무엇이 느껴진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몇 해전 안익태 선생의 친일행적이 뒤늦게 밝혀지면서 애국가 표절이니 새로운 애국가를 제정해야 된다는 얘기가 불거진 적이 있었다. 나치 체제 하의 독일에서 일본의 도움 없이 독자적인 활동을 하기 힘이 들어 일본인 에키타이 안(Ekitai Ahn)으로 활동했다는 사실과 1942년 안익태 선생이 일본의 괴뢰국가인 만주국 건국을 축하하기 위한 음악을 만들고 지휘했다는 동영상이 나오면서 논란이 뜨거워졌다. 특히 '한국환상곡'의 선율이 '만주국'의 선율과 두 군데 흡사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애국가를 새로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사실 일제 시대 변절했던 많은 예술가들이 '친일은 그 시대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고 나는 예술만 했다'라고 말한다면 할 말은 없다. 하지만 애국가를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서 한국환상곡을 작곡하며 조선의 독립을 염원했던 안익태 선생의 친일 이력은 상당한 충격으로 다가왔다. 동영상 자료가 남아있는 1942년 만주국 작곡과 지휘와 관련해서는 부인할 수 없는 친일 행적이 인정되고 있지만 그래도 '한국환상곡'을 작곡할 그 시기만큼은 순수한 나라사랑의 마음에서 작곡을 했을거라 믿고 싶다.

일반적으로 1938년까지 안익태 선생이 항일정신을 갖고 있었다고 보고 있다. 그 이후 7년 가량이 친일활동을 했다고 논란이 되고 있는데 1942년 경 안익태 선생은 이탈리아에서 '한국환상곡' 공연을 준비하다 일본의 항의로 쫓겨난 적이 있다고 한다. 당시 일본 정부는 '한국환상곡'이 항일의식을 고취시킬 뿐만 아니라 이제 한국이라는 나라는 일본화됐으니 괜히 남의 나라 내분을 조장하지 말라는 항의각서를 보냈다고 전해진다. 사실 '한국환상곡'은 곡 자체로 'Korea'라는 이름을 알리는 곡이다. 더구나 애국가 선율이 포함된 한국환상곡은 일본의 입장에서 보면 눈엣가시가 아니었을까 싶다. 게다가 안익태 선생은 자신이 가는 곳마다 '한국환상곡'을 연주했다고 하는데 실제 안익태 선생의 메모에 보면 1939년 이탈리아 로마와 유고슬라비아, 불가리아 소피아, 1940년 루마니아 부카레스트, 1941년 루마니아 부카레스트, 독일 베를린·하노버, 스위스 취리히, 1942년 스페인 바르셀로나, 1943년 독일 베를린·함부르크, 스페인 마드리드, 이탈리아 로마 등 전 유럽에 걸쳐 연주를 했다고 돼 있다. 그런데 친일음악인으로 일본과 긴밀한 관계였다면 이렇게 가는 곳마다 '한국환상곡'을 연주하며 한국의 상황을 외국에 알리려 애쓰진 않았을 것 같다.

지금 이 글을 쓰며 30여분에 이르는 '한국환상곡'을 계속 반복해 듣고 있다. 안익태 선생의 친일 행적이 이해되진 않지만 그의 인생 전반을 알지 못하기에 그를 마냥 친일작곡가로 매도하고 싶지는 않다. 객관적인 관점에서 인간 안익태에 대한 조명작업이 이뤄지고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그의 업적과 과오를 평가했으면 하는 마음이 드는 건 애국가에 대한 진한 사랑 때문이 아닐까 싶다.

● 글 김수연 KBS 울산라디오 「러브 클래식」 등, 라디오·TV프로그램 진행 및 작가로 활동을 하고 있다.

공연가이드

PERFORMANCES

2014 울산시민을 위한 야외 가족음악회

공연정보 6. 1(일) 20:00 야외공연장
공연주최 한국음악협회 울산광역시지회
입 장 료 무료
공연개요 울산시민의 음악적 문화 향유권 신장과 건전한 가족 여가문화 활성화를 위한 클래식과 대중음악의 조화로운 음악회

바리톤 나호윤 독창회

공연정보 6. 5(목) 19:30 소공연장
공연주최 좋은날음악기획
입 장 료 무료
공연개요 카루소 발성법으로 자기의 소리를 만들어 가는 바리톤 나호윤의 모습을 울산 시민들에게 친숙한 레퍼토리로 독창회를 준비함

젊은이들의 음악제

공연정보 6. 6(금) 18:00 소공연장
공연주최 피아노 소사이어티 클럽
입 장 료 무료
공연개요 양정은, 민강은이 주축으로 지역 음악 전공자들이 피아노 연주 기량향상 및 울산지역 클래식 저변확대를 위하여 낭만 음악과 에듀드를 위주로 꾸며진다

가족뮤지컬 “꼬마버스 타요”

공연정보 6. 7(토) 11:00, 14:00, 16:30
6. 8(일) 11:00, 14:00, 16:30
대공연장
공연주최 초록공간문화 기획단
입 장 료 R석 45,000원, S석 40,000원,
A석 35,000원
공연개요 영상기법을 이용한 서울 시티의 완벽한 구현과 플라이 기법을 이용하여 무대와 객석간의 거리 좁힘, 홀로그램을 이용하여 타요와 친구들의 실제적인 움직임 구현 거대한 크기의 타요 버스를 제작하여 실제 아이들이 탑승하여 공연을 즐기게 함

제11회 울산 청소년 윈드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공연정보 6. 7(토) 18:00 소공연장
공연주최 울산 청소년 윈드오케스트라
입 장 료 무료
공연개요 울산 청소년 윈드 오케스트라의 제9회 정기공연

‘영파워’ 울산 플루티스트의 밤

공연정보 6. 8(일) 19:00 소공연장
공연주최 Ark Ensemble
입 장 료 무료
공연개요 울산에서 발굴된 젊은 플루티스트들로 구성되어 “영파워” 울산 플루티스트의 밤을 준비하였습니다. 다양한 레퍼토리로 구성되어 있어서 학생들의 기량 들을수 있을 것입니다.

제17회 울산광역시 전국 국악경연대회

공연정보 6. 14(토) 10:00
6. 15(일) 10:00 소공연장
공연주최 (사)한국국악협회 울산광역시지회
입 장 료 무료
공연개요 전통음악의 보급 및 발전, 국악인에게 영예로운 등용기회 제공

울산매일과 함께하는 제15회 울산사랑 환경콘서트

공연정보 6. 18(수) 19:30 대공연장
공연주최 울산매일신문사
입 장 료 무료
공연개요 자연과 더불어 살기좋은 녹색도시 울산을 조성하기 위해 울산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산업발전과 삶의 질 개선이 동시에 충족되는 친환경 산업수도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울산시민의 환경의식제고와 화합의 장 마련

울산무용제

공연정보 6. 20(금) 19:30
6. 22(일) 17:00 소공연장
공연주최 (사)한국무용협회 울산광역시지회
입 장 료 무료
공연개요 울산 무용인의 수준 높은 문화예술 창작 의욕 고취와 제23회 전국무용제에 나갈 울산대표팀 선정을 위한 예선

공연가이드

PERFORMANCES

뮤지컬 “호두까기 인형”

공연정보 6. 22(일) 15:00, 18:00 대공연장
공연주최 울산현대오페라단
입 장 료 V석 30,000원, R석 20,000원
공연개요 각박해져 가고 있는 현대 사회에서 미래의 주역인 어린이들이 컴퓨터 문화와 이기주의적인 생활에 익숙해져 있어 날로 나약해져만 가는 현실의 안타까움에 세계 모든 어린이들의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는 명작

신기하고 달콤한 마술쇼

공연정보 6. 25(수) 10:40 대공연장
공연주최 극단 제이엠
입 장 료 전석 5,000원
공연개요 두 마술사의 좌우충돌 요리도전기 매직 세프가 만들어내는 대형케이크 마술

제5회 울산소리진흥회 정기공연 “울산아리랑제II”

공연정보 6. 25(수) 19:30 소공연장
공연주최 울산소리진흥회
입 장 료 전석 10,000원
공연개요 울산시민들의 마음을 담은 ‘울산아리랑’ 1부(울산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와 2부 울산의 소중한 무형문화유산 ‘울산농요놀이한마당’으로 재구성하여 공연함

울산 춤포럼무용단 창작무용 “능소화 2”

공연정보 6. 28(토) 17:30 소공연장
공연주최 울산 춤포럼무용단
입 장 료 무료
공연개요 깊이를 알 수 없는 인간의 집착과 사랑이라는 함축된 의미를 통하여 인간의 감정에 의한 여러 상황을 연출하고 이야기하고자 함

전시가이드

EXHIBITION

제3회 울산국제목판화 페스티벌

전시기간 6. 5(목) ~ 6. 10(화), 6일간
전시장소 제1,2,3전시장
전시주최 울산제일일보 (임채일)
전시내용 한·미·중·일 4개국 목판화 작가 70여명이 참가하여 문화 교류와 발전을 도모하고 우리나라와 울산의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목판화 100점 전시

울산대 서양화와 졸업작품전

전시기간 6. 5(목) ~ 6. 10(화), 6일간
전시장소 제4전시장
전시주최 울산대 서양화가 (하원)
전시내용 전통적 회화 및 실험적 매체 표현 등 새로운 작품들로 졸업예정자 29명의 서양화 작품 60점 전시

제3회 심천 최종국 수묵화 대작전

전시기간 6. 12(목) ~ 6. 17(화), 6일간
전시장소 제1전시장
전시주최 개인 (최종국)
전시내용 독도, 백두산, 남해 다랭이 논, 보성 차밭, 영월 선돌, 천지 비룡폭포 등 우리의 얼과 삶의 터전을 장엄하고 웅장하게 표현한 대형 수묵 산수화 작품 20점 전시

울산제일일보 보도사진전

전시기간 6. 12(목) ~ 6. 17(화), 6일간
전시장소 제2전시장
전시주최 울산제일일보 (임채일)
전시내용 울산제일일보 사진부 기자들이 1년여 동안 울산의 자연, 문화, 축제, 민속, 레저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울산의 현장 소식을 지면으로 보도한 사진작품 총 60점 전시

울산누드크로키 회원전

전시기간 6. 12(목) ~ 6. 17(화), 6일간
전시장소 제3전시장
전시주최 울산누드크로키 회원전 (이찬아)
전시내용 인체의 아름다움을 선으로 3~4분 만에 작가의 시선으로 재구성해 표현한 크로키 작품 40점 전시

제5회 빛그림포토클럽 회원전

전시기간 6. 12(목) ~ 6. 17(화), 6일간
전시장소 제4전시장
전시주최 빛그림포토클럽 (박윤상)
전시내용 우리가 살아온 오래된 기억, 오래 기억하고 싶은 것을 테마로 한 사진작품 총 50점 전시

제19회 아름다운 눈빛 미술제

전시기간 6. 19(목) ~ 6. 24(화), 6일간
전시장소 제1,2,3,4전시장
전시주최 울산미술협회 (최명영)
전시내용 문화교실, 동호회, 단체, 개인이 참여한 서양화, 한국화, 공예 등 다양한 미술작품 총 450점 전시

울산 국제환경사진 페스티벌

전시기간 6. 26(목) ~ 7. 6(화), 12일간
전시장소 제1,2,3,4전시장
전시주최 울산매일신문사 (이연희)
전시내용 공업도시에서 환경도시, 생태문화 도시로 변하고 있는 울산의 산업현장에 진하게 배어든 사람들의 이야기는 그 자체만으로 감동이 되며, 50명의 국내작가와 외국작가 10명의 "사진, 사람, 생활, 환경, 어울림"을 테마로 한 사진작품 200점 전시

06 _ 대공연장

06 _ 소공연장 · 야외공연장

01		01	
02		02	
03		03	· 합창단 기획공연 6.3(화) 20:00
04		04	
05		05	· 바리톤 나호윤 독창회 6.5(목) 19:30
06		06	· 젊은이들의 음악제 6.6(금) 18:00
07	· 가족뮤지컬 "꼬마버스 타요" 6.7(토) 11:00, 14:00, 16:30	07	· 제11회 울산청소년윈드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6.7(토) 18:00
08	· 가족뮤지컬 "꼬마버스 타요" 6.8(일) 11:00, 14:00, 16:30	08	· '영파워' 울산 플루티스트의 밤 6.8(일) 19:00
09		09	야외공연장 · 아트인시네마 6.9(월) 20:00
10		10	
11		11	야외공연장 · 뒀란 6.11(수) 19:30
12	· 교향악단 기획연주회 6.12(목) 20:00	12	
13		13	· 무용단 우수기획시리즈 6.13(금) 20:00
14		14	· 제7회 울산광역시 전국국악경연대회 6.14(토) 10:00 야외공연장 · 2014 청소년 어울림미당 개막식
15		15	· 제7회 울산광역시 전국국악경연대회 6.15(일) 10:00 야외공연장 · 제15회 청소년 무용제
16		16	야외공연장 · 아트인시네마 6.16(월) 20:00
17		17	· 청소년 교향악단 정기연주회 6.17(화) 20:00
18	· 제5회 울산사랑 환경콘서트 6.18(수) 18:00	18	· 제5회 울산사랑 환경콘서트 6.18(수) 18:00 야외공연장 · 뒀란 6.18(수) 19:30
19		19	
20	· 교향악단 정기연주회 6.20(금) 20:00	20	· 제18회 울산무용제 6.20(금) 19:30, 17:00
21		21	야외공연장 · 2014 제10회 전국실용음악 콘테스트 본선 6.21(토) 15:00
22	· 뮤지컬 '호두까기 인형' 6.22(일) 15:00, 18:00	22	· 제18회 울산무용제 6.22(일) 19:30, 17:00
23		23	야외공연장 · 아트인시네마 6.23(월) 20:00
24		24	· 모닝콘서트 6.24(화) 11:00
25	· 신기하고 달콤한 맛있는 마술쇼 6.25(수) 10:40	25	· 제5회 울산소리진흥회 정기공연 '울산아리랑제 2' 6.25(수) 19:30 야외공연장 · 뒀란 6.25(수) 19:30
26		26	· 청소년합창단 정기연주회 6.26(목) 20:00
27	· 드림스트릭 6.27(금) 20:00	27	
28		28	· 울산춤포럼무용단 창작무용 '능소화 2' 6.28(토) 17:30
29		29	
30		30	야외공연장 · 아트인시네마 6.30(월) 20:00

공연일정은 주최측의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6월의 공연·전시

Performances & Exhibition



06 _ 전시가이드

	1전시장	2전시장	3전시장	4전시장	상설전시장	야외전시장
01	· 제18회 울산광역시미술대전II부				· 올해의 작가 개인전-김언영展 6. 1(일)~6. 30(월) 30일간	· 전국야외조각 초대展II부 6. 3(화)~9. 25(목) 115일간
02	5. 29(목)~6. 3(화) 6일간					
03						
04						
05	· 제3회 울산국제목판화 페스티벌			· 울산대 서양화와 졸업작품전		
06	6. 5(목)~6. 10(화) 6일간			6. 5(목)~6. 10(화) 6일간		
07						
08						
09						
10						
11						
12	· 제3회 심천 최중국 수묵화 대작전	· 울산제일일보 보도사진전	· 울산누드크로키 회원전	· 제5회 빛그림포토클럽 회원전		
13	6. 12(목)~6. 17(화) 6일간	6. 12(목)~6. 17(화) 6일간	6. 12(목)~6. 17(화) 6일간	6. 12(목)~6. 17(화) 6일간		
14						
15						
16						
17						
18						
19	· 제19회 아름다운 눈빛 미술제					
20	6. 19(목)~6. 24(화) 6일간					
21						
22						
23						
24						
25						
26	· 울산 국제환경사진 페스티벌					
27	6. 26(목)~7. 6(화) 12일간					
28						
29						
30						

전시일정은 주최측의 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불링블링한 ART스타일 완성!

Always, with you

항상 당신의 가까이에 있습니다.
항상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항상 당신을 위해 많은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삶의 소박한 여유
가슴 속에서 퍼져 나오는 감동
울산문화예술회관이 함께 합니다.

울산문화예술회관 “문화가 있는 날” 운영
(매달 마지막 수요일)

— 공연할인

뒤란(실내공연) 및 예술단 공연 50% 할인,
대관공연 할인 권고

— 전시장 야간개장(오후 10시까지)

갤러리 ‘쉽’, 제1전시장(회관기획전시)
대관전시 권고

문예회원에 가입하면 공연정보와 할인혜택이 솔~솔~

회원의 종류

가입 기간	청소년회원	일반회원	가족회원 (4인기준)	단체회원 (10인기준)
1년	1만원	2만원	4만원	10만원 (1인추가시 1만원)
3년	2만5천원	5만원	10만원	25만원 (1인추가시 2만5천원)
5년	4만원	8만원	16만원	40만원 (1인추가시 4만원)
10년	7만5천원	15만원	30만원	75만원 (1인추가시 7만5천원)

가입방법

- 인터넷 : 회관 홈페이지(<http://www.ucac.co.kr>)
- 전 화 : 052)226-8274
- 방 문 : 울산시립예술단 사무국, 대공연장 매표소
※ 전화·방문 가입은 평일 9시부터 18시 사이에 가능하며,
홈페이지에도 가입을 하셔야 회원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비납부

- 인터넷 가입시 신용카드 및 가상계좌로 납부 가능
- 은행납부 : 경남은행 540-07-0183857 / 울산문화예술회관
농 협 317-8245-8245-41 / 울산문화예술회관
※ 은행납부는 지정계좌 입금 후 전화로 확인

회원혜택

- 월간 문화예술정보지 “울산문화예술회관과 함께하는 *Arts Friend*” 무료 우송
 - 회관기획공연 및 시립예술단공연 30% 할인 (일반 2매, 가족 4매, 청소년·단체 1매)
 - 회원을 위한 특별기획공연 초대 (일반 2매, 가족 4매, 청소년·단체 1매)
 - 대관공연 시 주최 측과 협의하여 5%~30% 이내 할인
 - 마일리지 포인트 적립(회원가입비 10%, 회관주최 공연 입장료 5%)
※ 마일리지 포인트로 회관 주최 유료공연 입장권 구매 가능
 - 이메일 및 SNS로 공연정보 제공 등
-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울산시립예술단 사무국(☎052-226-8274)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문화예술회관과 친구가 되어 주세요!!  

- 울산문화예술회관 트위터(@ulsanart)와 페이스북(ID:Ulsanartcenter)에 친구 신청을 하시면 빠른 티켓 오픈 정보와 공연, 전시 소식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울산문화예술회관 홈페이지(www.ucac.co.kr)를 방문하시면 친구 신청이 쉬워집니다.



울산시립합창단 기획공연

사랑의 노래

울산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2014. 6. 3(화) 오후 8시